

박사학위논문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장 우 창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최 동 현

2019년 8월

#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한 고찰

지도교수 장 우 창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한의학전공

최 동 현

2019년 8월

최동현의 한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主審教授 김선광 ㉮

副審教授 정창현 ㉮

副審教授 백유상 ㉮

副審教授 김종현 ㉮

副審教授 장우창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

# <목차>

목차 .....	i
표 차례 .....	iii
I. 序論 .....	1
II. 本論 .....	6
1. 元氣와 出入升降 .....	6
1) 『內經』의 出入升降 .....	9
2) 『內經』의 元氣 .....	12
① 『內經』의 天真 - 先天之氣 .....	12
② 『內經』의 天真과 『難經』의 元氣 비교 .....	17
3) 元氣의 특성 .....	22
① 沖和之氣 .....	22
② 造化之機 .....	23
2. 三焦와 元氣 .....	26
1) 腎間動氣와 命門 .....	26
2) 腎間動氣와 三焦의 관계 .....	30
3) 三焦 元氣의 특성 .....	32
① 元氣의 恒動性 .....	33
② 元氣와 後天穀氣의 차이점 .....	37
③ 手三焦와 足三焦 .....	39
3. 三焦와 津液 .....	43
1) 『靈樞·決氣』의 氣와 津液 .....	44
2) 上焦 衛氣와 津液 .....	48

3) 中焦 營氣와 津液 .....	53
4) 下焦 元氣와 津液 .....	56
① 下焦의 영역 .....	56
② 膀胱과 腎 .....	60
5) 소결 .....	63
4. 三焦의 元氣, 津液 病證 .....	65
1) 『中藏經』 .....	66
① 『中藏經』 개요 .....	66
② 『中藏經』의 三焦病機 .....	67
2) 『外臺秘要』 및 『刪繁方』, 『備急千金要方』 .....	72
① 上焦病證 .....	72
㉠ 上焦의 熱證 .....	72
㉡ 上焦의 寒證 .....	73
㉢ 上焦의 虛實證 .....	74
② 中焦病證 .....	75
③ 下焦病證 .....	76
④ 手三焦의 病證 .....	78
⑤ 足三焦의 病證 .....	79
3) 張元素 .....	80
① 『醫學啓源』 .....	80
②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 .....	82
4) 『溫病條辨』 .....	85
① 三焦와 五臟 배속 .....	85
② 三焦와 12經絡의 關係 .....	86
③ 三焦와 衛氣營血 .....	87
5) 소결 .....	88
Ⅲ. 考察 .....	90

IV. 結論 .....	94
V. 參考文獻 .....	98
<Abstract> .....	102
<감사의 글> .....	104

## <표 차례>

<표 1> 先天의 恒動과 火 .....	36
<표 2> 手三焦와 足三焦의 구분 .....	42
<표 3> 手三焦(上)와 足三焦(上) .....	48
<표 4> 三焦元氣의 상태에 따른 腠理변화 및 증상 .....	53
<표 5> 手三焦(中)와 足三焦(中) .....	56
<표 6> 『靈樞·營衛生會』와 『難經·31難』의 三焦 영역 비교 .....	57
<표 7> 手三焦(下)와 足三焦(下) .....	62
<표 8> 『靈樞·營衛生會』와 『難經·31難』의 三焦 영역 비교 .....	68
<표 9> 『中藏經』의 三焦 寒熱虛實 辨證 .....	71
<표 10> 『中藏經』과 『外臺秘要』의 증상 비교 .....	73
<표 11> 上焦病의 寒熱虛實 .....	75
<표 12> 中焦病의 寒熱虛實 .....	76
<표 13> 下焦病의 寒熱虛實 .....	78
<표 14> 『中藏經』과 『外臺秘要』의 手三焦, 足三焦 .....	79
<표 15> 『醫學啓源』와 『醫壘元戎』의 三焦辨證 .....	81
<표 16>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의 三焦病 治法 .....	83
<표 17>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의 三焦辨證 .....	83
<표 18> 先天의 恒動과 火 .....	91
<표 19> 手三焦와 足三焦의 구분 .....	92

# I. 序論

한의학에서 三焦에 대한 說은 역대 의가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黃帝內經』이 三焦를 決瀆之官이자 水道로 보아 津液代謝의 통로로 설명한 것과 더불어 『難經』의 腎間動氣說과 原氣之別使 개념은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三焦의 생리 방면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이어져 왔다. 금원사대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 三焦를 相火論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파도 있었고, 溫病學처럼 邪氣의 傳導 과정에 三焦辨證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개로 『難經』으로부터 촉발된 三焦의 有形無形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三焦와 命門, 心包 사이의 관계 또한 각 의가들이 따로 집편하여 설명할 만큼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三焦는 그 자체로 다스리는 영역이 광범위한 것 만큼이나 各家의 의견과 논점이 다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하나 연구하기에는 各家마다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도 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하나의 경향성은 있으니 후대로 갈수록 『黃帝內經』이 말한 水道의 개념에 자신만의 三焦說을 더하여 三焦의 기능과 작용이 점차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는 三焦의 기능이 水道로서 다방면에 걸쳐 있어,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도 쉽고 영향을 받기도 쉽다는 특성 때문이다. 또한 의가들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곳을 三焦의 개념을 통해 극복하려 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방대한 영역에 걸쳐 三焦論이 엮여 있으며 三焦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을 조사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방식의 접근 방법 중 三焦에 관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 중 하나는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중요한 서적을 선정하여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서적의 특징을 잡아내고 이를 나열하면 三焦 학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관점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와 연구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쉬운 것도 있다. 조학준<sup>1)</sup>은 葉天士, 吳鞠通 등 溫病의 三焦辨證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三焦에 대한 변증이 있다고 보았다. 唐代

1) 조학준. 唐代 以前の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2). pp.87-102.

이전에서는 三焦 병증을 上中下焦로 세분화하고 三焦 고유의 병을 寒熱虛實 辨證을 통해 치료하였다고 보았다. 각 서적의 비교를 통해 변증체계는 잘 정리하였으나 변증체계가 성립되게 되어 가는 과정이나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백유상<sup>2)</sup>은 기존 연구 성과들이 개별적인 三焦의 기능만 연구하거나 清代 溫病學의 三焦辨證 위주로 病機를 연구하여 관계성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黃帝內經』의 三焦說과 후대의 三焦相火說 비교하였는데 相火說의 발달이 三焦와 연결되어 三焦의 病機와 약물, 처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의론의 체계가 더 발달하고 충실해질수록, 새로운 학설을 三焦에 적용할 때마다 『黃帝內經』 고유의 三焦病證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념의 확장이 일어날 때마다 기저에 있던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三焦의 경우 『黃帝內經』에서는 三焦의 水道기능이 진단과 치료의 기준이었으나 후대에는 三焦의 기준이 少陽相火에 맞추어지면서 三焦의 개념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역대 의가들을 조사할 때 그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서로 비교하였을 때 무엇이 좋아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三焦처럼 비교적 늦게 의학에 편입되었고<sup>3)</sup> 활발하게 연구되어 내용이 크게 변할수록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三焦의 경우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야 三焦論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에 『黃帝內經』부터 『難經』, 金元四大家 등 다양한 의가들을 살펴본 결과, 고대일수록 『黃帝內經』의 水道 개념을 중심으로 三焦를 바라보아 三焦는 津液과 관련이 많았다. 또한 『難經』이후로 三焦의 주요 기능에 元氣 개념이 포함되어 元氣에 의한 津液 생리나 병리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었다. 후대의 金元四大家부터 相火論이 대두되었을 때는 相火論 중심의 三焦論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三焦의 개념 또한 확대되고 변화해 갔으며 明·清代에 이르러서는 三焦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준점을 세울 때 三焦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후대에도 응용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었다. 이에 三焦를 중심으

2)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윤은경,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187-202.

3) 하흥기,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靈樞』에 기재된 三焦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1. 24(4). pp.43-53.



로 놓고 津液을 본다면, 『黃帝內經』의 水道 개념을 이어주는 용어이고 元氣는 『難經』을 이어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元氣와 津液의 관계에 의해 氣와 津液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出入升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出入升降은 『黃帝內經』에서도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인간이 자연과 교류하는 天人相應의 의미가 있다. 또한 인간이 호흡하고 먹고 배설하는 것에 대해서 運化나 運輸와 같은 용어보다 三焦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더 잘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또한 三焦의 腠理 개념이나 大小便를 관여하는 기능은 出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元氣에 의한 津液 유통은 升降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三焦의 元氣와 津液과 出入升降은 三焦를 보는 중심 개념으로 삼아 후대의 三焦論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氣와 津液에 대해서는 이를 三焦와 직접 엮어서 설명하는 연구보다는 주로 氣와 津液대사를 연구하면서 부가적으로 三焦를 언급하는 정도가 많다.<sup>4)5)</sup> 이와 관련하여 류정아<sup>6)</sup>는 하나의 수곡의 인체대사 모델을 설명하면서 三焦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水穀이 소화 흡수되고 여러 종류의 기로 변화되며 배출되는 과정 전체를 三焦가 관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다. 三焦의 기능에 대해서 ‘焦’의 의미를 강조하여 水道의 역할만으로 삼초의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는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三焦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백상룡<sup>7)</sup>은 인체내의 水液대사를 연구하였는데 水液와 陽氣의 복합체를 津液의 기본형으로 두고 陽氣의 주도 하에 진액이 흐르기도 하고 氣化하여 성질이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水液과 陽氣는 서로 離合할 수 있다고도 보았는데, 이 離合을 통해서 성질이 변하면서 영양소의 역할과 노폐물의 역할로 변해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三焦는 비록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元氣와 陽氣, 三焦와 津液은 서로 연결되어 出入升降하는 관계로 보았다.

4)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膀胱 津液과 氣化에 關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3). pp.103-110.

5) 은석민. 民火의 개념 및 膀胱氣化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pp.237-251.

6)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63-78.

7) 백상룡. 인체내 수액의 특성 및 대사기전에 대한 연구 -진액, 혈, 한, 소변, 정의 생성기전 및 성질에 대하여-. 대한한의학회지 25권 3호. 2003년. pp.130-137.

李濟馬의 氣液 機轉 또한 氣와 津液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상원<sup>8)</sup>은 太陰人의 氣液 機轉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機轉’을 ‘代謝’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李濟馬의 脾胃-三焦-出納-散充 개념을 水穀-氣液 機轉의 원형이라고 파악하였는데, 이제마는 이를 연구하여 水穀-氣液이 실제로 운용되는 모습인 出納-呼吸에 대하여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李濟馬의 설이 기존의 다른 의가들의 出入升降 개념과 다른 점은 있으나 주목하는 바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가들도 진단을 위해 出納-呼吸과 같은 出入 개념을 통해 진단을 하기 때문이다. 즉,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땀과 大小便, 寒熱, 呼吸 등은 몸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자 치료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李濟馬가 제시한 水穀의 溫冷에 의한 升降 또한 『黃帝內經』에서 말하는 清濁의 升降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그 뿌리가 『黃帝內經』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氣와 津液을 통해 한의학의 생리와 병리를 보았지만 三焦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고에서는 元氣, 津液을 통해 인간의 생리와 병리를 연구하되, 三焦와 관련된 부분을 더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元氣論의 始初라고 볼 수 있는 『內經』의 天真 개념을 우선 고찰하고 『難經』으로부터 유래한 元氣說뿐만 아니라 漢代에 시작된 기일원론적 세계관도 참고하여 元氣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연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元氣의 특성을 『難經』의 腎間動氣 개념에 적용하여 『難經』이 말한 腎間動氣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이후 腎間動氣로부터 三焦元氣의 특성을 고찰하여 三焦와 元氣, 津液에 관한 연구의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三焦의 元氣의 특성이 파악되면, 이를 津液과 연계하여 三焦의 元氣에 의한 津液 운동을 살펴보아 『難經』이 제시한 三焦와 元氣의 出入升降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후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몇 의가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해당 의가들은 『內經』과 『難經』의 설과 관련이 많고 그 의론이 이어지는 의가들로 선정하였다.<sup>9)10)</sup> 이들의 공통적인 변증은 三焦의 寒熱虛實辨證이라고 할 수 있다.

8)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9) 후대에 가까울수록 三焦의 개념이 확장되어 『內經』과 『難經』의 三焦와 멀어진다고 할 수 있다.

10) 『中藏經』은 『難經』의 생리에 寒熱虛實 병리를 더하여 삼초변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대의 『千金方』, 『外臺秘要』는 『中藏經』에 처방을 추가하였고 『醫學啓源』, 『臟腑虛實標本用藥式』

寒熱虛實辨證은 熱하면 實해지고 寒하면 虛해지는 것을 기본원리로 보는 변증방법으로, 『內經』에서도 陰勝陽勝과 같은 용어와 함께 자주 활용되었다. 이에 三焦의 寒熱虛實辨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寒熱虛實 뿐만 아니라 三焦의 元氣와 津液 개념을 더해서 새롭게 고찰하려고 하였다. 이는 三焦 元氣를 통해 기존의 변증방법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변증과 진단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등은 『中藏經』으로부터 유래한 三焦의 寒熱虛實 변증을 집대성하였다.

## II. 本論

### 1. 元氣와 出入升降

일반적으로 『難經』으로부터 原氣說이 시작된 이래로 原氣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元氣와 原氣의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原氣說의 시발점인 『難經』에서조차 元氣와 原氣를 둘 다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후대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용어로서 혼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차윤근은 元氣가 인체의 가장 근본적인 氣로 인체의 생명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넓은 의미의 元氣는 광범위한 인체의 각종 氣를 통칭하는 용어로 설정하고, 좁은 의미의 元氣는 腎中精氣에서 化生된 氣로 설정하여, 좁은 의미의 元氣를 『難經』에서 말하는 原氣와 상통한다고 보았다.<sup>11)</sup> 김종한은 元氣의 ‘元’에 대해서 『周易』과 程子の「程傳」, 朱子の「本義」등의 설명을 참고하여 ‘元’을 始(시작), 혹은 大(廣大, 偉大), 혹은 首(머리, 으뜸)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았고 『難經』의 原氣에 대해서 異音同義의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元氣라는 용어가 『老子』와 『莊子』의 通體一氣論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보았는데 道生一의 一을 元氣라고 칭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sup>12)</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難經』의 原氣와 元氣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용어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原氣를 『難經』의 腎間動氣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元氣는 道家에서 유래한 용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본다면 原氣에 대해서 『普濟方』에 설명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太一之眞精，名曰原泉。內有蛇，所以呼吸元氣，營運百脈，爲三焦之原。”<sup>13)</sup>(普濟方)

11) 차윤근, 김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vol.3. p.380.

12) 김종한. 「신기존망론(神氣存亡論)」과 「원기존망론(元氣存亡論)」을 중심으로 한 기(氣)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217-233.

13)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 서울. 翰成社. 1978. p.1.

『普濟方』에서는 太一之眞精을 原泉이라고 하였고 안으로 蛇가 있으며 元氣를 호흡하고 百脈을 운영하니 三焦의 原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太一之眞精을 原泉이라고 하여 水性的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原’은 근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덕에서 물이 샘솟는 것과 관련하여 ‘原’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難經』에서도 原을 原穴 개념과 혼용하였고 三焦의 水道 역할 역시 水와 관련이 많다. 그런데 후대에서는 原氣대신 元氣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道家의 영향으로 原氣의 水性대신 天氣의 호흡과 연계하여 元氣의 陽性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용어의 깊은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原氣와 元氣가 근원과 시초라는 의미는 공유하는 바 큰 뜻을 같으므로 혼용할 수 있으며 세세한 의미의 차이는 오랫동안 혼용되면서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용어에 따른 혼돈을 막기 위해 대부분은 ‘元氣’로 용어를 표기하되 ‘原氣’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原氣’라고 지칭하려고 한다.

三焦로 넘어와서, 三焦의 경우 역대 의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일으킨 臟腑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도 『難經』에서 시작된 ‘有名而無形’이나 三焦와 相火와의 관계, 溫病學의 三焦辨證과 같이 후대의 많은 의가들의 논의를 통해 三焦의 개념과 역할은 확장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논의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三焦가 水道라는 사실이다. 水道는 三焦에 대한 정의 중 가장 근원적인 정의로 볼 수 있으며 水道의 실제 유무는 三焦의 有形無形에도 관련이 있다. 윤창렬은 『難經』의 31難과 66難을 인용하여 三焦가 인체의 모든 氣가 升降出入하는 通路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는데, 唐宗海의 설을 인용하여 삼초는 유형의 실질이 있어 水液이 運行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sup>14)</sup> 이는 三焦의 水道가 實質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有形이라고 하여도 덩어리 형태를 가지는 다른 臟腑와는 달리 水道가 거미줄처럼 얽힌 三焦는 有形과 無形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屬膀胱，是孤之府也。”<sup>15)</sup>(靈樞·本輸)

水道에 대해서 『內經』을 찾아본다면 『靈樞·本輸』에서 三焦가 中瀆之府이자 水道

14) 윤창렬.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2013. 26(2). pp.1-7.

15)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0.

가 출한다고 한 뒤, 膀胱에 屬하며 孤府라고 한 부분이 대표적인 문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三焦는 대개 水道로서 膀胱에 屬하며 津液이 흐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런데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膀胱에서 ‘氣化則能出’이 일어난다고 하여 氣化에 대해서 여러 의가들의 설이 분분하였다. 이에 대해서 三焦 또한 氣化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의가들도 있어 三焦는 단순히 津液의 運行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氣化와 津液의 出入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氣化에 대해서 『難經』은 原氣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原氣가 水道의 津液을 통솔하는 개념을 최초로 세웠다고 할 수 있다. 『難經』은 腎間動氣의 原氣가 三焦를 통해 전신으로 行氣한다고 하였는데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고 津液을 推動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은 氣의 특성으로 귀납되었다. 이에 후대에서는 『難經』을 따라 原氣를 元氣라고 지칭하며 津液보다는 元氣를 중심으로 三焦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三焦는 元氣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津液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三焦의 津液이 元氣에 의해 운동하는 모양 또는 현상을 묘사할 용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후대에서는 『內經』으로부터 出入升降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sup>16)</sup> 즉, 出入升降이란 용어의 본뜻은 三焦가 元氣를 다스려 온몸의 五臟六腑營衛經絡과 內外上下左右의 氣를 總統하여 津液을 움직이는 모양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出入升降이 運行이나 運化, 轉輸 등과 같은 津液이나 氣의 순환을 표현하는 용어와 다른 이유는 元氣의 특성이 자연과 함께 만물이 소통하는데 있으며 『內經』 또한 通天개념부터 시작하여 呼吸, 水穀의 흡수와 배출 등 사람이 자연과 함께 하는 과정을 出入과 升降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元氣란 만물이 자연과 더불어 出入升降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고도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내용은 『難經』의 元氣說이 등장하기 이전에 『內經』에서 찾아볼 수 있는 氣와 津液의 出入升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出入升降은 원래 『內經』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으므로, 三焦에 적용한 된 出入升降의 의미를 『內經』으로부터 찾아본 것이다. 이는 三焦의 元氣와 津液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전에 소개하는 元氣와 出入升降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6) 『臟腑標本虛實標本用藥式』“三焦爲相火之用, 分布命門元氣, 主升降出入, 遊行天地之間, 總領五臟六腑營衛經絡內外上下左右之氣, 號中清之府. 上主納, 中主化, 下主出.” (김은하, 변성희 공저.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釋. 서울. 일지사. 2001. p.215.)

## 1) 『內經』의 出入升降

出入升降의 개념은 『內經』으로부터 시작하였고 『內經』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된 편이다. 그러나 三焦와 出入升降에 대해서 직접 기술한 부분은 없으며 간접적으로만 유추할 수 있다. 『內經』은 出入升降을 설명할 때 후대의 水升火降의 개념과는 달리 주로 天地陰陽의 出入升降현상을 통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용어와 비유를 통한 설명 방식으로 인해 서로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른 면이 많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天氣, 地氣, 上下, 陰陽, 雲雨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각각의 묘사가 비슷하면서도 그 의미가 잘 통하지 않고 약간의 용어 차이로 해석이 미묘하게 다르게 될 여지가 컸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중에서 『素問·六微旨大論』은 出入升降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已，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是以升降出入，無器不有，故器者，生化之宇，器散則分之，生化息矣。故無不出入，無不升降。化有小大，期有近遠。四者之有，而貴常守，反常，則災害至矣。”<sup>17)</sup>(素問·六微旨大論)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出入이 廢하면 神機가 멸망하고 升降이 멈추면 氣立이 홀로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出入과 升降은 인체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어 단순 반복 작용이 아닌 生長壯老已와 生長化收藏 같은 서사를 가지는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人體는 하나의 器가 되어 出入升降이 일어나는 곳으로, ‘無不出入, 無不升降’라고 하여 出入升降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 器는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닌 소통하는 존재로 설명하였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天人合一이 단순히 자연의 이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18)</sup> 이에 出入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

17) 王冰撰.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18) 실제로도 동물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서로 일정한 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로 이 비율이 깨지면 자연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 환경재앙이 되는 것과 같다.

볼 필요가 있다.

“喉主天氣，咽主地氣”<sup>19)</sup>(素問·太陰陽明論篇)

“鼻通天氣曰玄門，口通地氣曰牝戶”<sup>20)</sup>(東醫寶鑑)

“劉君安曰，食生吐死，可以長存。謂鼻納氣爲生，口吐氣爲死。”，“取外氣法，鼻引生氣入，口吐死氣出，慎不可逆。”<sup>21)</sup>(醫心方)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출입로에 대해서 ‘喉’는 天氣를 주관하고 ‘咽’은 地氣를 주관한다고 하여 咽과 喉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이에 대해서 鼻는 天氣와 通하니 玄門이라고 하였고 口는 地氣와 通하니 牝戶라고 하였다. 『醫心方』에서는 劉君安의 말을 인용하여 生氣를 먹고 死氣를 토하니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코로 氣를 들어마시니 生氣가 되고 입으로 氣를 토하니 死氣가 된 다라고 일컬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인용문은 모두 사람의 호흡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호흡법에 대한 설명이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야 天氣와 地氣가 올바른 길로 들어오고 나가서 인간과 자연이 합일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호흡이 단순히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므로 인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계적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死氣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의 生氣가 되고 다른 생명의 死氣는 다시 인간의 生氣가 되는 가장 큰 순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出入을 통해 인간의 生長壯老已뿐만 아니라 자연의 生長化收藏과도 연동되어 모든 만물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이러한 큰 범위의 出入升降 개념을 배경으로 삼고, 실용성이 중요한 의학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려고 하였다. 出入升降 개념의 범위를 좁혀 자연의 出入升降의 과정을 의학적인 관점을 통해 인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故清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地氣，雲出天氣。故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清陽發腠理，濁陰走五藏，清陽實四支，濁陰歸六府。”<sup>22)</sup>(素

19)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7.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590.

21) 丹波康賴 撰.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55.

22)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56-57.



問·陰陽應象大論)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地가 太極에서 分化되어 淸陽이 天이 되고 濁陰이 地가 된 후 天地間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地氣가 상승하여 구름이 되고 天氣가 下降하여 비가 되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인체에 적용할 때는 淸濁의 出入으로 표현하였는데 淸陽이 上竅로 出하고 濁陰이 下竅로 出하는 上下이동과 淸陽이 發腠理하고 實四支하며 濁陰이 走五藏하고 歸六府하는 內外이동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자연의 出入升降을 인체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靈樞·陰陽淸濁』와 『靈樞·五味』에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한발 더 나아가 水穀과 呼吸의 出入과 淸濁升降을 결합하였다.

“受穀者濁，受氣者淸。淸者注陰，濁者注陽。濁而淸者，上出於咽，淸而濁者，則下行。淸濁相干，命曰亂氣。”<sup>23)</sup>(靈樞·陰陽淸濁)

“黃帝曰，營衛之行奈何。伯高曰，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其大氣之搏而不行者，積於胸中，命曰氣海，出於肺，循喉咽，故呼則出，吸則入。天地之精氣，其大數常出三入一，故穀不入半日則氣衰，一日則氣少矣。”<sup>24)</sup>(靈樞·五味)

『靈樞·陰陽淸濁』에서는 水穀이 濁이 되고 受氣가 淸이 되어 淸한 것은 陰으로 이어지고 濁한 것은 陽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후 濁而淸은 목구멍으로 올라가 出하며 淸而濁한 것은 下行한다고 하였다. 앞서 『素問·陰陽應象大論』의 과정이 태극에서 처음 음양으로 분화되는 과정이라면 『靈樞·陰陽淸濁』은 한 번 더 분화하여 淸濁이 淸中之淸(淸陽), 淸中之濁(淸陰), 濁中之濁(濁陰), 濁中之淸(濁陽)으로 나누어지는 四象의 과정을 거치며 出入升降하는 것이다. 『靈樞·五味』에서는 여기에 胃, 肺, 三焦, 營衛, 大氣의 개념까지 더하여 매우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였고, 이는 出入升降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여러 의가들이 出入升降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나 『內經』보다 더 자세히 기술한 서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다. 후대에서는 『內

23)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59.

24)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201-202.

經』의 일견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淸濁운동과 가장 관련이 많은 三焦와 元氣를 통해 陰陽淸濁의 出入升降 운동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특히 『難經』의 경우 元氣와 津液으로 인간의 出入升降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三焦에 적용하여 三焦는 인체의 핵심 臟腑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었다.

이상 三焦의 元氣와 津液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三焦의 元氣와 津液은 『內經』의 陰陽淸濁의 出入升降과 관련이 많으며,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三焦가 강조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추측해보자면 『內經』의 陰陽淸濁의 出入升降은 위에서 정리한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이를 간단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임상에 응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나 철학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종교가 다신론에서 유일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나 多氣論에서 一氣論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복잡한 현상을 간단한 이치로서 우주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본 논고 또한 이와 유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元氣에 대한 고찰이다. 元氣에 대한 연구는 나머지 내용과 모두 관여할 수 있는데, 본 논고에서 元氣 이후의 내용은 元氣에 대한 연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2) 『內經』의 元氣

『難經』은 出入升降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元氣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는 道家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內經』안에서도 先天之氣의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즉 『難經』의 元氣는 『內經』의 先天之氣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① 『內經』의 天真 - 先天之氣

『內經』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氣기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氣를 찾는다면 先天之

氣라고 할 수 있다. 先天之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天氣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內經』에서는 『素問·生氣通天論』과 『素問·六節藏象論』에 거의 비슷한 문장을 통해 두 번 제시되었다.

“黃帝曰，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天地之間，六合之內，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皆通乎天氣。其生五，其氣三，數犯此者，則邪氣傷人，此壽命之本也。”<sup>25)</sup>(素問·生氣通天論)

“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其氣九州九竅，皆通乎天氣。故其生五，其氣三，三而成天，三而成地，三而成人，三而三之，合則爲九，九分爲九野，九野爲九藏，故形藏四，神藏五，合爲九藏以應之也。”<sup>26)</sup>(素問·六節藏象論)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通天’에 대해서 生의 근본이자 陰陽을 근본으로 삼아, 天地 사이와 六합의 안에서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 때 그 氣는 九州九竅, 五藏十二節을 통해 모두 天氣에 通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內經』이 ‘通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內經』의 주석가들은 ‘通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通天者，謂通元氣天真也。然形體者，假天地之氣而生，故奉生之氣，通計於天，稟受陰陽而爲根本，天地合氣，命之曰人。”<sup>27)</sup>(保命集)

“此言其氣者，謂天真之氣，常系屬於中也。天氣不絕，眞靈內屬，行藏動靜，悉與天通。”<sup>28)</sup>(讀素問鈔)

“凡自古有生之物，皆出天元之氣，雖形假地生，而命惟天賦。”<sup>29)</sup>(類經)

25)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34.

26)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93-94.

2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397-398.

28) 滑壽. 讀素問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9.

29)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923.

“元氣，即天真也。形假地生，命惟天賦，故奉生之氣，通系於天，稟於陰陽，而爲根本也。”<sup>30)</sup>(瘍醫大全)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通天’에 대해서 天真과 元氣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保命集』에서는 元氣天真이라고 하였고 『讀素問鈔』에서는 天真之氣, 『類經』에서는 天元之氣, 『瘍醫大全』에서는 元氣가 곧 天真이라고 하였는데, 표현은 약간씩 다르나 그 의미는 같으므로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天真元氣로 통칭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주석가들이 설명한 天真元氣는 모두 先天之氣의 개념으로 天真之氣를 元氣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天真元氣가 ‘通天’하여 자연과 인간이 교류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難經』이 말하는 元氣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內經』의 ‘通天’은 양생법에서도 응용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夫上古聖人之教下也，皆謂之虛邪賊風，避之有時，恬憺虛無，眞氣從之，精神內守，病安從來。”<sup>31)</sup>(素問·上古天真論)

‘恬憺虛無’는 『內經』 양생법 중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정창현은 恬憺虛無에 대해서 『道德經』의 “恬淡爲上(31章)”의 구절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보았다.<sup>32)</sup> 이를 근거로 ‘恬’은 조용한 상태를, ‘淡’은 편안한 상태를, 虛無는 雜念이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였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恬憺虛無하여 眞氣가 그것을 따르게 만들면 精神이 안으로 지켜지니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上古天真論’이란 편명을 참고한다면, 이 때의 眞氣는 先天에 속하는 天真라고 볼 수 있다. 또한 虛邪賊風을 때에 맞게 피하는 구절도 중요한데 날씨나 계절을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은 天真之氣와 소통하는 만큼 邪氣와도 소통할 수 있으니, 邪氣의 침입을 방지하려면 외부로부터의 접촉 또한 조심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內外를 모두 조심하여야 양생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30)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1.

31)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19-20.

32) 정창현. 東醫寶鑑和道家思想的關聯性.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2) pp.25-30.

요약하면, 恬憺虛無와 같은 양생법 또한 ‘通天’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과 인간의 감응 현상인 동시에, 天真元氣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通天’은 단순히 호흡하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따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를 出入升降에 적용하면 出入升降의 가장 큰 범위는 天真元氣의 出入이며, 이 出入은 호흡을 통해 天氣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자연히 따라 들어오는 無爲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至眞之要，在乎天玄，神守天息，復入本元，命曰歸宗。”<sup>33)</sup>(素問·刺法論)

『素問·刺法論』에서는 至眞之要是 天玄에 있으며, 神이 天息을 지키면 다시 本元으로 들어가니 이를 歸宗이라 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養生을 위한 呼吸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한 구절로, 恬憺虛無를 통해 眞氣가 따라 들어오는 것을 天息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인간은 天息을 통해서 天玄에 이어져 있으며, 올바르게 숨을 쉬면 곧 本元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이때 元은 시초이자 근원의 의미를 나타내며, 호흡을 통한 吸氣가 丹田으로 간다는 사상은 丹田이 생명의 근원이지 시초인 선천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難經』의 原氣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 原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原氣는 일차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나 더 근원을 따진다면 자연의 天真元氣에서 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天真元氣는 그 대상이 넓고 깊어서 이를 의학으로 적용할 때는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內經』에서는 虛邪賊風의 邪氣와 眞氣간의 相搏 개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때는 天真에서 天을 제외하고 眞氣라고 칭하였다.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眞氣를 經氣라고 하여 경맥을 따라 흐르는 존재로 인식하였고,<sup>34)</sup> 『靈樞·刺節眞邪』에서는 眞氣를 天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穀氣와 더불어 몸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靈樞·刺節眞邪』에서는 眞氣를 正氣와도 구분하였는데 正氣를 正風에 비유하고 邪氣는 虛邪賊風으로 보았다. 또한 正氣는 邪氣와 반대되는 성질로 둘 다 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正氣는 시간과 장소를 잘 지

33) 李慶雨 譯.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5. 서울. 여강출판사. 1999. p.319.

34) 『素問·離合眞邪論』 “眞氣者，經氣也.”(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36.)

키므로 正風의 속성을 지녀 그 氣가 부드럽고 약하여 眞氣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邪氣는 시간과 장소와 어긋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을 해치는 氣라고 보았다.<sup>35)</sup> 즉 正氣 개념 자체가 주변 환경과 연동된다는 의미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관계라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扶正祛邪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 扶正의 원래 의미는 陽氣의 공급이 아닌 陰陽의 균형 또는 營衛의 調和를 통해 正風의 부드럽고 온화한 상태로 복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正氣와 眞氣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正氣는 주로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 外治의 양생법이 필요하며 眞氣는 정신의 상태가 중요한 內治의 양생법이 필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상 『內經』의 先天之氣에 대해 살펴보았다. 『內經』의 先天之氣는 天真元氣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天으로부터 생성된 眞氣의 의미와 시초이자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元氣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天真元氣는 ‘通天’이라는 작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교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恬憺虛無을 통한 無爲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無爲를 통한 ‘通天’은 ‘天息’이라는 호흡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難經』의 元氣說과 호흡 개념으로 그 의미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難經』의 元氣說과 『內經』의 天真元氣說이 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難經』이 『內經』을 기반으로 元氣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眞氣의 경우 穀氣와 더불어 경락을 흐르면서 몸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邪氣와 대비되며, 正氣는 眞氣와는 다르게 邪氣와 같은 風의 속성을 가진다. 이는 正氣가 인체의 外治를 담당하고 眞氣가 內治를 담당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부터는 『內經』의 天真元氣보다 더 후대의 元氣說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며, 이를 『內經』의 天真元氣와 비교하여 보려고 한다.

35) 『靈樞·刺節眞邪』“黃帝曰，餘聞氣者，有眞氣，有正氣，有邪氣，何謂眞氣。岐伯曰，眞氣者，所受於天，與穀氣并而充身也。正氣者，正風也，從一方來，非實風，又非虛風也。邪氣者，虛風之賊傷人也，其中人也深，不能自去。正風者，其中人也淺，合而自去，其氣來柔弱，不能勝眞氣，故自去。”(王冰 註解。四部備要『靈樞經』。臺北。臺灣中華書局。1972. pp.264-265.)

## ② 『內經』의 天真과 『難經』의 元氣 비교

元氣는 『內經』의 天真元氣 개념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도입은 『難經』을 통해 이루어졌다. 『難經』의 元氣는 陽氣를 중요시하는 道家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陽氣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sup>36)</sup> 『內經』에서도 『素問·生氣通天論』을 보면 陽氣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內經』 정말로 陽氣를 더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 『內經』은 氣의 陰陽속성을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陰陽의 속성은 太極에서 출발하여 五行보다 앞서는 개념으로 어떤 대상의 陰陽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것과 같다. 이것을 질병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病因들이 각각의 病機를 가지고 있지만 病因의 陰陽속성을 파악한다면 복잡한 증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內經』 또한 질병을 분석하고 病機를 살필 때는 陰陽辨證을 기초로 두었다고 할 수 있다.

“夫寒者，陰氣也，風者，陽氣也.”<sup>37)</sup>(素問·瘧論)

“陽氣少，陰氣多，故身寒如從水中出.”<sup>38)</sup>(素問·逆調論)

예를 들면 『素問·瘧論』은 風寒의 邪氣조차도 陰陽으로 환산하여 간소화하였고, 『素問·逆調論』은 陰氣와 陽氣의 多少로써 寒症과 熱症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였다. 이는 陰陽辨證을 진단의 수단으로 사용한 예시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근원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 대상의 陰陽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天真元氣의 陰陽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天真元氣의 陰陽에 대해서는 『素問·生氣通天論』를 주로 참고할 수 있는데, 『素問·生氣通天論』에는 陽氣에 대한 언급이 陰氣보다 더 많다. 이에 대하여 장우창은 단순히 文意만 파악하여 陰陽을 파악하기 보다는 ‘陰陽體用’과 같은 관점을 세워 陰陽을 파악한다면 『素問·生氣通天論』의 陰陽

36) 下元虛冷이라는 病機로 송대까지 여러 의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37)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81.

38)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73.

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이는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氣가 주어인 문장이나 陽氣가 원인인 병증들이 많다고 해서 陰氣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陰者，藏精而起亟也，陽者，衛外而爲固也.”<sup>40)</sup>(素問·生氣通天論)

실제로도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陰이 藏精而起亟하고 陽이 衛外而爲固라고 하여 陰과 陽을 동등한 입장에서 다루었다. 이에 『內經』과 비슷한 시기에 元氣說을 비교함으로써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漢代 전후로 醫家가 아닌 儒家에 의해서 발원한 元氣에 대한 관점이 하나 더 존재한다.<sup>41)</sup> 이는 揚雄<sup>42)</sup>에서 시작하여 王充<sup>43)</sup>, 楊泉<sup>44)</sup>을 거쳐서 발생한 기일원론적 세계관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儒學者이지만 道家의 설을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학설을 세웠으며 기일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元氣論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유학이 통치이념으로 활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감에 따라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황제의 권위를 신성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당시의 주류 사상인 참위설(讖緯說)<sup>45)</sup>,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을 비판하며 나왔기 때

39) “『生氣通天論』에서 陽 주도와 陰 주도로 양분되는 논의를 통합하여, 질병의 인식 상에서 또 修養의 차원에서 한결같이 陰陽體用的 대의를 파악할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없이 본다면, 陽氣가 주어로 등장하는 황제의 언설을 취하여 扶陽의 길만을 선택하게 되거나, 陰이 주어로 등장하는 기백의 언설에서 陽有餘陰不足의 실상을 갈파하지 못하고 무정한 기계적 陰陽互根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陰道와 陽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어 도무지 조리가 서지 못하는 우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장우창. 《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試論.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6). p.76.)

40)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41.

41) “고대 중국철학에서 본체의 문제에 대한 탐구는 ‘元氣’에 대한 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元氣說은 漢代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漢代의 儒家들 당시의 天道觀에 입각하여 諸家의 학설을 흡수하면서 발전된 것이었다. 그런데 漢代의 元氣說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초적인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先秦시기의 黃老之學에서 유래된 精氣說이라고 볼 수 있다.”(殷哲玟. 漢代 元氣說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6. 19(1). p.55.)

42) 前漢 BC 53년 ~ AD 18년.

43) 後漢 AD 23년 ~ AD 220년.

44) 西晉 생물년대 미상

45) “양한 학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참위(讖緯)의 유행이다. 한 대 유가의 대표적인 학파인 금문학파와 고문학파는 물론이고 금·고문 양자의 장점을 취해 그 둘을 종합하고자 한 동한말(東漢末)의 정현(鄭玄) 같은 유학자까지 참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정도였다. 아니 참위에서 자유하기는 커녕 참위에서 주석을 달 정도로 그것에 착념해 있었다. 심지어 참위는 유가경학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도교사상이 생성되는 내원 중의 하나였을 정도였다. 물론 王充 같은 참위 반대론자도



문에 漢代까지는 주류 학자들 사이에서 배척되었으며 참위설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폐지되는 晉代 이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sup>46)</sup>

그들 중 楊泉은 만물의 근본인 물(水)에서 갖가지 성질을 지닌 '원기(元氣)'가 생기고, 그것이 자연현상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水나 元氣 자체는 道家의 설과 유사한데 『難經』의 命門原氣와 腎間動氣, 下元虛冷과 같은 陽氣 중심의 의학관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혼천설과 같은 그들의 기초적인 우주관은 의학에 편입되었지만 다른 의견은 의학에 구체적으로 자주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일원론적 세계관 등장 이후 상당히 시간이 흘러 劉河間에 이르러서야 水를 바탕으로 元氣를 보는 관점이 재등장하였다. 劉河間의 元氣說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劉河間은 이러한 元氣說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병은 火熱로 인해 발생하고 水性의 元氣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그러나 그가 전파한 元氣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內經』의 天真元氣과 劉河間의 元氣와 간략하게 비교한 뒤 元氣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劉河間은 元氣의 대해서 근본적인 성질을 말할 때 『內經』의 天真을 따와서 天真元氣라고 하였고 『內經』의 陰陽사상에 영향을 받아 元氣를 陽性이라거나 陰性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있었지만 그것의 형세를 막지는 못했다.”(박동인. 漢代 讖緯說의 형성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儒敎 思想文化研究. vol.74. 2018. p.195)

46) “漢代의 元氣說은 漢代의 儒家들이 先秦시기 黃老之學의 精氣說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先秦시기 黃老之學의 精氣說은 주로 北方黃老道家인 齊나라의 稷下學派에서 道家의 본류로서의 道一元論적 개념을 ‘氣’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었으며, 漢代에 들어서는 초기에 관방학문으로 자리한 黃老之學이 儒學을 중심으로 한 사상적 통일의 과정에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漢代 元氣說의 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殷哲玟. 漢代 元氣說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6. 19(1). p.64.) - 기존 黃老之學 기반의 유학과 대립하기 보다 융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夫太乙天真元氣，非陰非陽，非寒非熱也。”<sup>47)</sup>(素問玄機原病式)

“釋名<sup>48)</sup>曰，脈，脈幕也。如幔幕之遮複也。幕絡一體之形，導太一真元之氣也。元氣者，在氣非寒非熱非暖非涼。”<sup>49)</sup>(素問病機氣宜保命集)

劉河間은 天真元氣의 陰陽 속성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天真元氣에 대해서 陰도 아니고 陽도 아니며, 寒도 아니고 熱도 아니라고 하였다. 『釋名』의 정의를 인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劉河間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즉, 元氣는 陰陽으로 나누어지기 전 陰陽을 모두 포괄한 全一的 개념이기 때문에 陰陽이나 寒熱의 치우침이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許員曰，木瘦金方火尖水肥土濃。蓋論五行以元氣爲根，…… 是以元氣爲根本，五行爲枝葉。夫元氣者，兌之位也，元始之祖，先天地生，圓而無隙，寂而不動，感而遂通，虛而生神，幹體成焉。幹爲天，天一生水，故一水二火三木四金五土，五行形焉。四方之民，均受元氣一也，及其生焉，各類五行，形體殊異。”<sup>50)</sup>(素問病機氣宜保命集)

劉河間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許員의 말을 인용하며 五行까지도 그 근본을 元氣로 보았다. 또한 元氣와 五行의 관계에 대해서 元氣를 근본으로 五行을 枝葉으로 보아 나무에 비유하였는데 元氣가 兌의 위치에 있으며 天地보다 먼저 生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元氣의 성질에 대해서는 둥글고 틈이 없으며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느끼고 통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元氣의 작용에 대해서는 텅 빈 듯하나 神을 生하고 幹體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후 幹의 의미를 天으로 정의하면서 天이 첫 번째로 生하는 것을 水라고 보고 五行의 수리적인 순서에 따라 水火木金土가 形成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우선 元氣의 水개념이 강조된 기일월론적 세계관과 유사하다.

4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66.

48) 후한 말의 훈고학자 劉熙가 지은 책. 사물의 명칭을 분류하고 어원과 뜻을 풀이를 한 책이다.

49)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96.

50)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12.

元氣의 속성을 陽氣와 같은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形體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점은 기일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一氣에서 形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통적인 元氣 개념이 無形の 氣에 가깝다면 劉河間은 幹體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元氣가 有形에 영향을 주고 幹體를 만들어 五行을 生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元氣가 固藏하면 몸이 야위더라도 무해하다고 하였는데,<sup>51)</sup> 穀氣를 줄이고 恬憺虛無하여 眞氣를 修養하는 것을 강조한 道家의 설과 유사하다.

元氣의 水개념은 『內經』에서 말한 天癸와 腎氣와도 같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天一生水와 『素問·上古天真論』의 天癸, 腎氣 개념은 상당히 유사하여 사람의 생명이 하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先天의 의미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본 것으로 腎水는 하늘과 첫 번째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感而遂通’ 같은 표현도 元氣의 성질 중 중요한 부분으로, 元氣는 만물을 빈틈없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접촉한 것과 소통한다는 개념이다. 元氣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므로 元氣와 만물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內經』에서 말한 ‘通天’의 개념과 같아서 元氣는 호흡 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자연과 감응하는 것으로 『內經』의 天真 또는 眞氣는 劉河間이 말하는 元氣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內經』과 기일원론적 元氣說은 공통점이 많으며 사실상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일원론적 元氣說에는 『內經』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자세히 서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1) “元氣固藏則羸而無害”(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512.)

### 3) 元氣의 특성

#### ① 沖和之氣

元氣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다. 이는 元氣가 天地로 나누어지기 전 全一性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실제 현상에 드러날 때는 치우침이 발생하면 서로 沖和의 현상이 나타나 중립의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釋名曰，脈，脈幕也，如幔幕之遮複也。幕絡一體之形，導太一眞元之氣也。元氣者，在氣非寒非熱非暖非涼。在脈者非弦非洪非澀非沉，不爲氣而浮沉。不爲血而流停，乃沖和自然之氣也。”<sup>52)</sup>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劉河間은 元氣의 성질에 대해서 ‘非陰非陽，非寒非熱’라고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속성으로 보고 氣에 있어서는 寒熱溫涼하지 않고 脈에 있어서는 弦洪澀沉하지 않고, 氣가 되어도 浮沈하지 않고 血이 되어도 흐르거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沖和自然之氣라고 하였다.

앞서 말한 元氣의 속성 중 ‘寂而不動’ 개념과 유사한데 陰陽이 온전하며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이처럼 안정적이라는 것은 陰陽의 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沖和自然之氣라고 명명하였다. 沖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元氣 개념 하에서는 성질이 다른 것들이 부드럽게 조화되어 있는 모양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元氣를 沖和之氣 또는 調和之氣라고 지칭하였는데 先天의 의미를 살려 天真造化之氣, 天真委和之氣 등 다양한 용어로 불러왔다.

---

52)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96.

## ② 造化之機

元氣에는 調和의 성질 이외에도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 바로 動而不息하다는 성질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

“故春溫夏熱秋涼冬寒，所以然者，爲元氣動而不息，巡於四方木火水金之位，溫涼寒暑之化，生生相續，新新不停，日月更出，四序迭遷，脈不爲息。故人有身形之後，五臟既生，身中元氣即生焉。”<sup>53)</sup>(素問病機氣宜保命集)

『保命集』에서는 春溫하고 夏熱하고 秋涼하고 冬寒하는 까닭은 元氣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으로 (元氣가) 四方의 木火水金의 위치를 돌면서 그 四方의 溫涼寒暑의 영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멈추지 않아 해와 달이 번갈아 뜨고, 四時가 차례로 변하고, 脈이 쉬 없이 흐르는 것이니 사람에게도 身形이 발생한 이후 五臟이 이미 生하면, 身中의 元氣가 곧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元氣는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자연의 四時變化를 일으키고 인간의 脈循環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元氣가 動而不息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도 살펴야 한다. 『內經』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바로 神이라고 할 수 있다.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sup>54)</sup>(素問·六微旨大論)

“所言節者，神氣之所遊行出入也，非皮肉筋骨也。”<sup>55)</sup>(靈樞·九鍼十二原)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出入이 廢하면 神機가 소멸하고, 升降이 쉬면 氣立이 홀로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神氣가 遊行하고 出入하는 곳을 節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皮肉筋骨에 있는 關節이나 皮肉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 하였다. 이는 모두 天真元氣의 ‘通天’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恬憺虛無하여 神守天

53)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96.

54) 王冰撰. 四部備要『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55) 王冰 註解. 四部備要『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1.

息하면 天真元氣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恬憺虛無는 달리 말하면 守神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생법은 守神을 하여 天真元氣의 出入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天真元氣의 出入升降을 조절하는 하나의 틀로써 神機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根于中者，命曰神機，神去則機息，根于外者，命曰氣立，氣止則化絕。”<sup>56)</sup>(素問·五常政大論)

『素問·五常政大論』에서도 『素問·六微旨大論』와 유사한 문장이 나온다. 살펴보면 中에 뿌리를 두는 것을 이음하여 神機라고 하는데, 神이 去하면 機가 쉬고, 外에 뿌리를 두는 것은 이음하여 氣立이라고 하고 氣가 그치면 化가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神機와 氣立은 息하거나 止할 수 없다는 뜻으로 動而不息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후대 의가들을 찾아보면,

“天地以一元之氣，化生萬物。根於中者，曰神機。根於外者，曰氣立。”<sup>57)</sup>(格致餘論)

“所受天地生氣，陽氣爲氣，陰氣爲血，身中之神，元氣之根。根於內者，名曰神機。根於外者，名曰氣立。”<sup>58)</sup>(醫效秘傳)

『格致餘論』에서는 天地는 一元의 氣로 만물을 化生하는데, 中에 뿌리를 두는 것을 이음하여 神機라고 하고, 外에 뿌리를 두는 것은 이음하여 氣立이라고 하였다. 『醫效秘傳』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내었다. 天地의 生氣를 받음에, 陽氣는 氣가 되고 陰氣는 血이 되니, 身中의 神은 元氣의 뿌리이므로 안으로 뿌리를 두는 것은 이음하여 神機라고 하고 밖으로 뿌리를 두는 것은 이음하여 氣立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두 의가 모두 元氣와 神機를 밀접한 관계로 보았으며, 神機는 하나의 틀로써 元氣의 出入升降을 조절하고 動而不息하는 역할을 하여 만물을 기르고 造化롭게 한다고 할 수

56) 王冰撰. 四部備要『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57)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6.

58) 葉天士. 葉天士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704.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元氣는 造化의 성질과 動而不息하는 恒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조절하는 神機의 역할 또한 고찰해 보았으며 이 恒動의 성질은 『難經』의 腎間動氣의 개념과 이어진다. 腎間動氣는 呼吸을 통한 出入升降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항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부터는 『難經』의 腎間動氣를 살펴봄으로써 三焦의 元氣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 2. 三焦와 元氣

### 1) 腎間動氣와 命門

『難經』은 腎間動氣에 의한 三焦元氣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三焦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김진호는 『難經』의 左腎右命門說을 중심으로 腎間動氣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命門’에 대해서 특정 부분이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보았고 腎間動氣가 腎臟이나 命門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아 腎間動氣와 命門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9)</sup> 또한 左右와 間의 의미를 左旋而下降, 右旋而上升을 통한 입체적 운동으로 인식하여 左腎右命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는 元氣의 升降出入에 대해서는 자세히 고찰하였으나 三焦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백유상은 범위를 좁혀 『太素』의 腎間動氣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三焦가 原氣之別使로서 腎間動氣로부터 받은 原氣를 운행, 선포하는 주체이지만, 氣血의 선포 기능을 가지는 衝脈의 上下運行이 腎間動氣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內經』에 나오는 三焦 개념을, 현실적으로 가장 비슷한 기능을 하는 衝脈과 연결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sup>60)</sup> 정창현은 楊上善이 언급한 衝脈의 上下 경로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素問·骨空論』을 기반으로 衝脈이 少陰에 가까운지 陽明에 가까운지 살펴보았는데 衝脈은 足少陰經과 그 근원이 같고 流注 노선 또한 足少陰經과 같다고 하였다.<sup>61)</sup>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腎間動氣는 命門과 다른 것으로 腎間動氣의 위치는 衝脈과 더불어 인체의 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의 기존 연구들이 腎間動氣보다는 命門과 相火, 命門과 表裏가 되는 三焦의 개념을 주로 연구하였다면<sup>62)</sup> 본 논고는 위에서 소개한 3편의 논문들

59) 김진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pp.253-266.

60) 백유상. 黃帝內經太素 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p.101-111.

61) 정창현.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p.223-234.

62) “지금까지 『難經』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연구는 주로 命門學說 또는 후대의 相火學說과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腎間動氣가 선천의 原氣로서 兩腎 간에 자리 잡고 原氣가 선포되는 근원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醫家들의 큰 이견이 없었다. 그에 비하여 命門이 右腎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腎間에 위치하여 原氣의 근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인지, 후대에 相



처럼 腎間動氣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腎間動氣는 三焦元氣의 근원으로 三焦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함에도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元氣說을 기반으로 腎間動氣에 대해 고찰하여 三焦의 元氣를 연구할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腎間動氣와 命門의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는 命門을 살펴봄으로써 腎間動氣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대 의가들이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衝脈起於胞中，爲經脈海，當知衝脈從動氣生，上下行者爲衝脈也。”<sup>63)</sup>(太素)

楊上善은 衝脈에 대하여 腎間動氣의 動氣를 따라 上下行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楊上善은 腎間動氣와 衝脈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하였지만 命門을 腎間動氣와 엮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sup>64)</sup> 이에 命門과 衝脈의 관련 여부를 찾아본 결과, 命門과 衝脈은 접점이 없다고 보인다. 清代에 이르러 간혹 命門과 衝脈이 관련이 있다고 한 몇몇 서적이 있으나 이는 命門을 丹田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丹田에 위치한 命門과 衝脈은 交會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衝脈과 右命門은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으며 衝脈과 이어진 腎間動氣와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右命門은 腎間動氣 보다는 三焦와 관련을 짓는 의가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下焦在臍下膀胱上口，治在臍。經曰，原氣者，三焦之別使也。腎間動氣者，眞元一氣，分爲三路，人之生命也，十二經之根本也。李瀕湖曰，三焦即命門之用，與衝

火學說이 발전하면서 原氣와 火의 관계 속에서 命門 또는 三焦의 기능과 작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등 주로 命門과 相火, 三焦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108.)

63)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122.

64) “『太素』의 腎間動氣說에 대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太素.輸穴.變輸』에서 “人之命門之氣，乃是腎間動氣.”라고 한 것을 두고 『難經』이래 최초로 命門과 腎間動氣를 연결시킨 것으로서 明代 腎間命門說의 시초로 볼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命門學說에 대한 여러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 결과이고, 이 문장이, 楊上善이 命門의 개념을 腎間動氣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109.)

任督相通者，故附著於此。”<sup>65)</sup>(奇經八脈考)

“腎者，人生之根本。神門者，元氣之宗始。故云精神之所舍也。神門亦命門也。虞曰。經云。右爲命門。元氣之所繫也。脈經言與三焦爲表裏。三焦又主三元之氣。准此推之。三焦自命門之所起也。屬手少陽火。配心包手厥陰火爲表裏。其理明矣。”<sup>66)</sup>(難經集注)

이상의 문장들은 三焦와 命門의 관계를 통해 命門의 相火기능을 반추한 것들이다. 『奇經八脈考』에서는 腎間動氣는 眞元一氣라고 하였는데, 三焦는 命門의 用이 되어 衝任督脈과 서로 통한다고 하였다. 이는 腎間動氣와 命門을 구분하되 三焦를 命門에도 배속하여 命門의 기능이 衝任督脈에 이르도록 확대한 것이다. 『難經集注』에서는 右命門은 元氣가 얽힌 곳으로 보고, 『脈經』에서 (右尺脈에서 命門과) 三焦가 表裏가 된다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후 三焦 또한 三元之氣를 주관하므로 이를 의거하여 추론하면, 三焦는 命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三焦는 手少陽火에 속하게 되고 手厥陰火와는 表裏가 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命門이 三焦의 少陽相火와 心包의 相火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종합해 본다면, 『難經』에서는 원래 腎間動氣와 三焦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楊上善은 衝脈을 가져와 腎間動氣의 기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다른 의가는 腎間動氣보다는 命門에 중점을 두어 三焦를 腎間動氣가 아닌 命門에 배속하여 相火의 관점으로 三焦와 命門을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命門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 腎間動氣를 대체하는 命門丹田說까지 등장하였는데 이는 『難經』의 본의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難經』에서 말한 腎間動氣의 본연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元氣는 動而不息하는 성질이 있고 이를 造化之機라고 하였다. 腎間動氣의 ‘動氣’는 元氣의 恒動性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아래에서부터는 다루지 않았던 ‘腎間’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65) 李時珍.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1637.

66) 王九思 等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88.

“又曰 水數一，萬物之本，五行之先，故腎水者，人之本，命之元，不可使之衰弱。根本不堅，則枝葉不茂，元氣不固，則形體不榮。”<sup>67)</sup>(三消論)

“腎有兩枚，皆屬於水，雖有左右之分，初無水火之別，考之『內經』，昭然可覽。『仙經』曰兩個一般無二樣，中間一點是真精。”<sup>68)</sup>(攝生總要)

“太一之真精，名曰原泉。內有蛇，所以呼吸元氣，營運百脈，爲三焦之原。”<sup>69)</sup>(普濟方)

『三消論』에서는 水의 數는 一로 만물의 근본이면서 五行의 선두인 高로 腎水는 인간의 根本이자 生命의 근원이니 쇠약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70)</sup> 이후 根本이 견고하지 않은 즉, 枝葉이 무성하지 못하고, 元氣가 굳건하지 않은 즉, 形體가 영화롭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곧 腎水가 五行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지면서 근원이 되니, 인간의 元氣는 腎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攝生總要』에서는 腎은 兩枚가 있으니 모두 水에 속하고, 비록 좌우의 구분은 있으나 처음에는 水火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어 『仙經』을 인용하였는데 腎은 개수로는 두 개가 존재하지만 하나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中間의 一點에 眞精이 있다고 하였다. 『普濟方』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眞精을 太一之眞精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原泉’이라고 하였다. 안으로 蛇가 있으며 元氣를 호흡하고 百脈을 운영하여 三焦의 原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腎間은 양쪽의 腎의 가운데로, 水火로 나누어지기 전 眞精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腎間에서는 動氣가 발하여 三焦의 근원이 되는데, 이 과정을 후대에서는 胎兒가 母宮에 있을 때 臍帶를 통한 호흡을 그 시발점으로 보았다. 이는 다분히 관념적이라 할 수 있는 天一生水의 개념을 의학적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胎兒의 형성과정을 통해 腎間動氣와 三焦 사이의 관계

6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640.

68) 洪基. 攝生總要.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on April 20, 2018]: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467679#p15>

69)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 서울. 翰成社. 1978. p.1.

70) 수리학에 따라 水가 제일 먼저 생긴다는 사상은 송대에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2) 腎間動氣와 三焦의 관계

『難經』은 腎間動氣로부터 유래한 元氣가 三焦를 통해 行한다고 하였지만 三焦와 腎間動氣이 이어지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腎間動氣에 대해서 腎水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도 보아야 한다. 바로 태아의 발생으로 보는 관점으로, 정창현은 『東醫寶鑑』의 腎間動氣說을 인용하여 腎間動氣를 설명하였다. 腎間動氣는 태아였을 때부터 모친으로부터 받은 元氣가 호흡을 따라 오르내리던 기운이 臍下에 뭉쳐 형성된 것으로, 태어난 후에는 臍下에 뿌리를 두고 氣가 上下로 出入하면서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을 요약하기를, 氣는 呼吸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呼吸의 根本이 된다고 하였다.<sup>71)</sup> 이와 관련하여 劉河間 또한 태아의 발생을 통해 腎間動氣를 설명하였다. 劉河間은 臟腑생성 순서를 설명할 때 수리학 적 五行의 생성 순서인 水火木金土를 기반으로 삼았는데, 胎兒의 발생 순서는 이를 응용하여 조금 더 복잡하게 기술하였다.

“夫人之始生者，稟天地之陰陽，假父母之精血，交感凝結，以爲胞胎矣。先生右腎則爲男，以外精內血，陰爲裏也。先生左腎則爲女，以外血內精，陽爲裏也。其次腎生脾，脾生肝，肝生肺，肺生心，然臟爲陰，故始於腎水而終於心火，以生其勝己也。其次自心生小腸，小腸生大腸，大腸生膽，膽生胃，胃生膀胱，然腑爲陽，故始於小腸火而終於膀胱水也，以生其己勝矣。臟腑一定，自膀胱生三元，三元生三焦，三焦生八脈，八脈生十二經，十二經生十二絡，十二絡生一百八十孫絡，一百八十孫絡生一百八十纏絡，一百八十纏絡生三萬六千系絡，三萬六千系絡生三百六十五骨，三百六十五骨生五百筋脈，五百筋脈生六百五十五穴，六百五十五穴生八萬四千毛竅。胎完氣足，靈光入體，則與母分解，而生爲人也。”<sup>72)</sup>(素問要旨論·通明形氣

71) “『東醫寶鑑』에 의하면, 元氣는 태어나기 전에 母親의 호흡을 따라 오르내리던 기운이 臍下에 뭉쳐 형성된 것이며, 태어난 후에는 臍下에 뿌리를 두고 기가 상하로 출입하면서 호흡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는 호흡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호흡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정창현, 백유상, 위보영, 장우창. “『東醫寶鑑』의 精氣神 養生法과 그 특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1). p.138.)

篇)

臟腑의 生成순서는 腎과 命門이 제일 먼저 생성된다고 하였다. 左腎이 먼저 生하면 女子가 되고 右腎이 먼저 생성되면 남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후 腎->脾->肝->肺->心->小腸->大腸->膽->胃->膀胱->三元->三焦->八脈->12經絡 순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五臟의 생성 순서는 五臟은 陰이므로 腎에서 시작하여 相克 관계의 역순으로 생성되고 心에서 끝난다. 六腑는 陽이므로 心 다음으로 小腸이 먼저 생성되어 相克의 순서로 생성되어 膀胱에서 끝난다고 하였다. 五臟五腑가 만들어지면 방광으로부터 三元이 생성되고 三元은 三焦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臟腑 生成순서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膀胱-三元-三焦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膀胱은 三焦와 함께 津액을 다스리는 관계로 이 둘이 서로 三元 즉, 元氣와 이어진다는 것이다.

“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屬膀胱，是孤之府也。”<sup>73)</sup>(靈樞·本輸)

“腎效不已，則膀胱受之，膀胱效狀，效而遺溺。久效不已，則三焦受之。”<sup>74)</sup>(素問·效論)

“下焦者，當膀胱上口”<sup>75)</sup>(難經.31難)

“下者水道之系也。亦又屬膀胱之宗始”<sup>76)</sup>(中藏經)

“古人謂左腎爲腎臟，其腑膀胱，右腎爲命門，其腑三焦。三焦者，有脂膜如手大，正與膀胱相對，有二白脈自中出夾脊而上貫於腦。”<sup>77)</sup>(三因極一病證方論)

『靈樞·本輸』에서는 三焦는 中瀆之府로 水道가 出하며 膀胱에 屬한다고 하였고 『素問·效論』에서는 腎效가 그치지 않으면 膀胱이 받고, 膀胱의 咳嗽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면 三焦가 받는다고 하였다. 『難經.31難』에서는 下焦가 膀胱上口에 맞닿는다고 하였고 『中藏經』에서는 下焦는 水道의 系이니 역시 膀胱의 宗始에 속한다고 하여 膀胱이 시작점이 되고 三焦가 이에 이어져 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옛 사람들이 “左腎은 腎臟이되고 그 腑는 膀胱이라고 하였고 右腎은

72)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26.

73)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0.

74) 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 56-57.

75) 金景수, 송지청 역. 國譯 難經. 파주. 집문당. 2015. p.157.

76)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77)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94.

命門이 되니 그 腑는 三焦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三焦는 手大 정도 되는 크기의 脂膜이 있어 바로 膀胱과 상대한다고 보았다. 또한 두 개의 白脈이 있어 가운데에서 出하여 脊을 끼고 위로 腦에 관통한다고 보았다. 요약해 보면, 三焦는 『內經』에서도 三焦가 膀胱에 속하고 膀胱咳嗽가 三焦로 전변된다고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膀胱과 三焦의 관계가 밀접함을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대에는 三焦와 膀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조적인 면까지 연구하였는데 劉河間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胎兒는 臍帶를 통해 呼吸운동을 하며, 이 때 腎間動氣가 시작되고 五臟五腑가 완성된 이후에는 三元之氣가 형성되어 膀胱을 통해 下焦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三焦가 만들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難經』을 기반으로 과정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五臟五腑의 생성 순서만 劉河間이 따로 補入한 부분이다. 臟腑의 생성 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三焦가 五臟과 經絡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劉河間은 三焦가 經絡의 體外와 五臟의 體內를 이어주는 존재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三焦와 元氣의 특성

앞서 腎間動氣의 기원과 三焦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三焦는 五臟五腑와 經絡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難經·66難』이 말한 原氣之別使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原氣之別使의 역할은 주로 ‘主持諸氣’, ‘通行三氣’, ‘經曆於五臟六腑.’라고 하여 주로 氣와 津液의 유통의 의미로 응용되었다. 이에 元氣의 어떤 작용에 의해 三焦가 行氣하며 津液의 유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 ① 元氣의 恒動性

“夫血譬則水也，氣譬則風也，風行水上有血氣之象焉，蓋氣者，血之帥也，氣行則血行，氣止則血止，氣溫則血滑，氣寒則血凝，氣有一息之不運，則血有一息之不行。”<sup>78)</sup>(仁齊直指方論)

앞서 살펴보았듯이 元氣는 動而不息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元氣뿐만 아니라 모든 氣 또한 바람에 비유하여 動性を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楊士瀛은 『仁齊直指方論』에서 氣는 바람에 비유하고 血은 물에 비유하였다. 바람이 물 위로 불면 血이 따른다는 비유를 통해 氣와 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氣와 津液의 관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氣의 움직임에 따라 津液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氣는 한 순간도 운행되지 않음이 없고 血 또한 쉬없이 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의 氣의 恒動性を 의미한다.

恒動性이라고 하였을 때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陽氣의 모습이다. 『仁齊直指方論』에서도 “氣溫則血滑，氣寒則血凝”이라고 하였고 『內經』에서도 氣가 溫分肉한다고 보아 이후 대부분의 의가들 또한 溫煦작용에 대해서 氣의 기본 성질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氣의 動性を 陰陽으로 변환하여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夫腎主元氣，天一之水生焉。…… 元氣乃水中之火。”<sup>79)</sup>(三因極一病證方論)

“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陽動而變，陰靜而合，而生水火木金土，各一其性。惟火有二，曰君火，人火也。曰相火，天火也。火內陰而外陽，主乎動者也，故凡動皆屬火。”<sup>80)</sup>(格致餘論)

“先人云，丹正一點，腎間動氣，水裏陽生，義合日月。”<sup>81)</sup>(本草乘雅半偈)

“貫膿三朝 ○ 九日十日，回水之時，元氣熏蒸，眞陽運化，其水自然消燼，此循環之妙理也。”<sup>82)</sup>(東醫寶鑑)

“夫陰火即水中之火，乃人身元氣之根蒂，宜溫養。”<sup>83)</sup>(本草述鉤元)

78)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5.

79)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63.

80)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8.

81) 盧之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47.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122.

8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1731-1732.

83)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p.484.

“水中之火，自上升以为散也.”<sup>84)</sup>(本草述鉤元)

宋代 陳無擇은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腎이 元氣 주관하며 天一의 水가 生하는 곳으로 보고 元氣를 水中之火로 보았다. 반대로 元代의 朱丹溪는 『格致餘論』에서 五行중 火만이 두 가지가 있어서 君火는 人火라고 하고, 相火는 天火라고 하여 相火論을 저술하였다. 이 때 火에 대해서 火의 괘상을 기반으로 內陰而外陽으로 보았는데, 火는 動하는 것을 주관하는 故로 일반적으로 動하는 것들은 모두 火에 속한다고 하였다. 明代 盧之頤는 『本草乘雅半偈』에서 丹正一點이 腎間動氣이니 水裏陽生이라고 하였고 『東醫寶鑑』 또한 元氣가 熏증하여 眞陽이 運化되면 水가 自然히 消爍되니 이것이 순환의 妙理라고 하여 元氣의 火性이 순환의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清代의 『本草述鉤元』에서는 陰火는 곧 水中之火로 人身元氣의 根蒂이니 마땅히 溫養해야한다고 보았고 水中之火은 上升함으로써 흩어진다고 보았다.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개 動에 대해서 水보다는 火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氣의 작용으로 行動과 溫煦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움직이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陽氣라고 하여도 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陰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의가마다 陰과 陽의 비율이나 관계의 차이는 있으나 水中之火로 설명하는 의가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백상룡은 “水液은 본래 성질이 陰性이기 때문에 陽氣를 함유할 수 있으며, 반대로 陽氣를 함유하고도 陰濕한 본체를 유지할 수 있는 陰體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水液의 陰體가 陽氣를 함유하는 것으로 보았다.<sup>85)</sup> 즉, 水中之火의 수를 水液으로 본다면 水液은 기본적으로 陰體이지만 陽氣를 머금고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火 또는 陽氣에 의한 動氣는 恒動 개념과는 다른 점이 있다. 元氣는 動而不息하지만 寒熱陰陽으로 치우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고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모순으로 恒動은 원래부터 그러한 것, 즉 無爲로서 引導되는 것이고 火 또는 陽氣에 의한 動氣는 有爲로서 推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推動은 일반적인 陽氣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

84)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p.74.

85) 백상룡. 인체내 수액의 특성 및 대사기전에 대한 연구 -津液·血·汗·小便·精의 생성기전 및 성질에 대하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25(3). p.133.



며 溫煦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恒動은 천체의 움직임처럼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체 생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에 비유할 수 있다. 恒動은 무한히 지속되는 개념으로 少火生氣의 개념에 가깝고, 推動은 壯火로서 지속적인 氣의 소비가 일어나 有限하다고 할 수 있다.

“其不可混者, 以陽爲元氣之大主, 火爲病氣之變見, 而動乃陽之性道, 安得以性道爲病變, 而言凡動皆屬火也. 即自天人論之, 則曰天行健, 豈天動即火乎?”<sup>86)</sup>(景岳全書)

張景岳은 “그 혼탁해지질 수 없는 것은 陽을 元氣의 大主로 삼는데, (陽과는 다르게) 火는 病氣가 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動은 陽의 性道이니 (動이 火에 속한다고 보아서) 어찌 性道를 (火에 의한) 病變으로 여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일반적인 動은 모두 火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天人으로부터 論한 즉, 天行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어찌 天이 움직인 즉 그것이 곧 火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朱丹溪의 설을 비판하였다. 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근거로 元氣의 陽에 의한 恒動은 火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에 元氣의 恒動은 火와는 다르며 元氣의 恒動을 잘 지키는 것은 양생법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是以上古真人, 把握萬象, 仰觀日月, 呼吸元氣, 運氣流精, 脫骨換形.”<sup>87)</sup>(素問病機氣宜保命集)

『保命集』에서는 上古의 真人은 삼라만상을 파악하고 日月을 관찰하고 元氣를 呼吸하여 運氣流精하여 환골탈태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은 萬象과 日月의 恒動에 완벽하게 同化되어 真人이 된다는 뜻이다. 즉 양생법은 守神을 통한 通天뿐만 아니라 자연의 恒動과 완벽하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식물처럼 자연에 완벽하게 同化되어 몇 백년을 살지 못한

86)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22.

87)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95.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陰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陽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36.5도의 항온상태를 유지하는 少火의 상태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三焦 또한 元氣를 다루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는 대개 陽性을 강조하였다.

“三焦者，水穀之道路，氣之所終始也。楊曰，焦，元也。天有三元之氣，所以生成萬物，人法天地，所以亦有三元之氣，以養人身形。”<sup>88)</sup>(難經集注)

『難經集注』에서는 三焦는 水穀의 道路이자 氣의 終始로, 三焦의 焦에 元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焦라는 것은 少火의 개념으로, 天의 三元之氣가 직접 少火로써 태우는 작용을 하여 生氣하며 만물을 기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相火의 생리적인 개념과도 이어지며, 이것 또한 眞人이 아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恒動이라고 할 수 있다.

“東垣一部『脾胃論』，…… 故胃氣有穀氣，榮氣，衛氣，宗氣，陽氣之別名，要皆此元氣之異稱，而此氣即『內經』所謂‘少火生氣’之氣也。‘少火生氣’，即爲眞陽之氣，乃生人立命之根。”<sup>89)</sup>(質疑錄)

기전	이름	성질	소모성	작용의 결과
火	三焦元氣	少火, 焦, 蒸	有(불안전)	生氣(後天穀氣)
恒動	腎間動氣	陰陽平均	無	呼吸

<표1> 先天의 恒動과 火

張景岳은 『質疑錄』에서 胃氣에는 穀氣, 營氣, 衛氣, 宗氣가 있으며 모두 陽氣의 다른 이름이자 元氣의 異稱이라고 하였다. 이 氣는 『內經』에서 말한 少火生氣의 氣라고 하였으며 少火가 氣를 生하는 것은 眞陽之氣의 역할로 眞陽之氣는 사람을 生하고 命을 세우는 근본이라고 하였다. 즉, 少火生氣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眞陽이 하는 역할로 眞陽이 脾胃를 도와서 後天元氣(穀氣, 榮氣, 衛氣, 宗氣, 陽氣)가 발생한다

88) 王九思 等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80.

89) 張介賓 著, 安永敏 編譯. 質疑錄 譯疏. 서울. 한미의학. 2009. p.60.

는 것이다.

“若腰腎氣盛，是爲眞火，上蒸脾胃，變化飲食，分流水穀，從二陰出，……常須暖補腎氣，飲食得火力。”<sup>90)</sup>(普濟本事方)

『普濟本事方』에서도 腰腎의 氣가 盛하면 이것이 眞火가 되는데 위로 脾胃를 찌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수곡을 分別하고 흐르게 하여 二陰을 따라 배출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후에 항상 모름지기 腎氣를 暖補하여 飲食이 火力을 얻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眞陽이 少火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腎間動氣의 陽性(眞陽)은 어떤 움직임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의가들이 脾胃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津液을 찌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대의 溫補派들은 이를 命門相火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단, 相火라고 하여도 水中之火의 의미를 살려야 하며 火病이 아닌 恒動하는 陽性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眞陽이 脾胃를 찌는 과정은 三焦의 焦의 의미와 매우 유사한데 眞陽의 작용이 下焦에서 中焦로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脾胃의 水穀과 津液을 찌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三焦의 元氣는 腎間動氣에 비해서 불안정한 恒動이기 때문에 少火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sup>91)</sup> 즉, 三焦元氣의 異常상태는 相火의 病變이므로 이어지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은 三焦는 水穀의 後天之氣와 先天의 元氣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先天元氣의 恒動性은 後天穀氣의 動性和 구분 필요하다.

## ② 元氣와 後天穀氣의 차이점

원래 元氣는 沖和之氣로 陰陽寒熱의 치우침이 없이 恒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少火之氣가 필요하며 恒溫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에 일정한 陽氣의 소모가 일어난다. 이것은 『內經』에서도 出三入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up>92)</sup> 인간은 기

90) 許叔微 著.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30-131.

91) 浮陽 또는 無根之火의 의미이다.

본적으로 소모가 많으며 생리적 기능도 吸入보다는 배출이 더 비중이 높다고도 본 것이다. 道家에서는 여러 수련을 통해 出三을 出一로 맞추어 완전한 평형을 이루어 陰陽和平之人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醫家は 현실적으로 水穀을 섭취함으로써 소비되는 것을 보충하려고 하였으며 이 때 三焦는 水穀의 通路의 역할을 하며 水穀의 出入升降을 관장한다. 또한 三焦는 腎間動氣로부터 발원한 先天의 元氣를 유통하는 기능도 있다. 즉, 三焦의 기능은 水穀과 元氣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氣 또한 크게 나누어 보면 腎間動氣에 해당하는 先天元氣와 水穀을 통해 흡수하는 後天穀氣로 나누어지므로 三焦의 기능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後天穀氣의 경우 李東垣은 따로 先天之氣의 개념을 두지 않고 水穀의 精氣가 바로 元氣이자 眞氣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張景岳이나 吳謙은 後天之氣와 先天之氣를 구분하였으며<sup>93)94)</sup> 이 둘은 하나의 元氣에서 둘로 나누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張景岳의 경우 『內經』에서 말하는 少火生氣의 과정을 통해 先天과 後天을 기능적으로도 구분하였다. 先天元氣에 少火의 성질을 부여하여 眞陽이라고 지칭하였으며 眞陽은 脾胃가 水穀을 소화시켜 後天之氣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 先天元氣(眞陽)를 生氣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에 後天穀氣는 先天元氣의 眞陽에 의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後天元氣라고 지칭하였다. 後天元氣는 胃에서 시작하여 肺脈으로 가서 호흡을 통해 들어온 天真元氣를 받으면 血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에는 宗氣가 만들어지며 脈을 따라 흐르는 運化가 일어난다. 이는 眞陽이 脾胃를 溫蒸하는 과정과 脾胃(穀氣)에서 肺脈(天真元氣)으로 가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는 眞陽이 주도하며 下焦의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後者는 脾胃(穀氣) 中焦의 역할과 肺脈(天真元氣) 上

92) 『靈樞·五味』“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其大氣之搏而不行者，積於胸中，命曰氣海，出於肺，循喉咽，故呼則出，吸則入。天地之精氣，其大數常出三入二，故穀不入半日則氣衰，一日則氣少矣。”(王冰 註解，四部備要 『靈樞經』，臺北，臺灣中華書局，1972，pp.201-202.)

93) 『質疑錄』“東垣一部『脾胃論』，俱以補中益氣湯爲主，無非培人後天元氣之本。顧元氣爲生身之精氣，而實祖於胃。故胃氣有穀氣，榮氣，衛氣，宗氣，陽氣之別名，要皆此元氣之異稱，而此氣即『內經』所謂‘少火生氣’之氣也。‘少火生氣’，即爲眞陽之氣，乃生人立命之根。”(張介賓 著，安永敏 編譯，質疑錄 譯疏，서울，한미의학，2009，p.60.)

94) 『醫宗金鑑』“元氣者，太虛之氣也，人得之則藏乎腎，爲先天之氣，即所謂生氣之原，腎間動氣者是也。生化於脾，爲後天之氣，即所謂水穀入胃，其精氣行於脈中之營養，其悍氣行於脈外之衛氣者是也。若夫合先後而言，即大氣之積於胸中，司呼吸，通內外，周流一身，頃刻無間之宗氣者是也。總之，諸氣隨所在而得名，實一元氣也。”(吳謙，御纂醫宗金鑑，서울，법민문화사，2006，p.404.)

焦의 역할이 습한 것이다. 이렇게 氣의 종류에 따라 三焦 또한 그 영향을 받는데 이를 『內經』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후대에서는 手三焦와 足三焦로 구분하였다.

### ③ 手三焦와 足三焦

手三焦와 足三焦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內經』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三焦者，上合手少陽，出于關衝……三焦下膻<sup>95)</sup>，在于足大指<sup>96)</sup>之前少陽之後，出于膈中外廉，名曰委陽，是太陽絡也，手少陽經也。”<sup>97)</sup>(靈樞·本輸)

“三焦者，足少陽太陰之所將，太陰之別也，上踝五寸，別入貫膈腸，出於委陽，並太陽之正，入絡膀胱，約下焦。”<sup>98)</sup>(靈樞·本輸)

“足三焦者，太陽之所將，太陽之別也，上踝五寸，而別入貫膈腸，出于委陽，並太陽之正，入絡膀胱，約下焦。”<sup>99)</sup>(太素)

『靈樞·本輸』에서는 三焦가 위로는 手少陽에 上合하고 아래로는 三焦下輸하여 足太陽의 前과 少陽의 後에 있는데 오금의 바깥쪽 모서리에서 出하니 委陽이라고 하였다. 또한 『太素』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足三焦라는 용어가 나오며, 足三焦는 太陽之別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三焦의 개념은 上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도훈은 三焦經의 하부 경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sup>100)</sup> 이는 곧 足三焦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체표의 경락과 체내의 장부가 연계되는 정도는 주로 둘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靈樞·本輸』에서는 ‘上合’이라는 개념과 ‘下合’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로 떨어져 있는 장부가 연계된다고 하

95) 『太素』에는 下膻가 下輸로 되어있다.

96) 『太素』에는 足大指가 足太陽으로 되어있다.

97)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17-18.

98)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8.

99) 같은 문장이 『靈樞·本輸』에도 나온다. 그러나 『靈樞·本輸』에는 足三焦를 三焦로 표기하는 등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후대 의가들은 足三焦를 언급할 때의 문장은 모두 『太素』와 같은 문장을 가지고 논의하였다.(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134.)

100) 김도훈. 三焦經 하부 경맥 연관성에 대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4). pp.1-15.

였다. 이는 경락학적 관점으로 경락과 장부의 연계를 살핀 것으로, 이를 토대로 手三焦와 足三焦의 관계를 살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락학적 관점은 『靈樞·本輸』을 기반으로 두는 것으로 후대의 여러 의가들은 경락학적 관점에만 국한하여 手三焦와 足三焦를 본 것은 아니다. 후대의 여러 의가들은 上中焦와 下焦로 구분하여 手三焦와 足三焦의 의미를 확장해 나갔다.

“營衛者，精氣也，血者，神氣也，故血之與氣，異名同類焉。”<sup>101)</sup>(靈樞·營衛生會)

“上者絡脈之系也，中者經脈之系也，下者水道之系也，亦又屬膀胱之宗始”<sup>102)</sup>(中藏經)

“上者所受於天，以通呼吸者也。中者生於水穀，以養營衛者也。下者氣化於精，藏於命門，以爲三焦之根本者也。”<sup>103)</sup>(醫門法律)

『靈樞·營衛生會』에 따르면 營衛는 精氣이고 血은 神氣인 차이점은 있으나, 異名同類라고 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脈內를 흐르는 營氣는 血의 運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脈을 중심으로 서로 傳變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上焦와 中焦에는 둘 다 胃脘部에서 시작하여 胸部까지는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것도 같다. 이를 토대로 『中藏經』에서는 上中焦를 經脈과 絡脈으로 연계하였는데, 下焦는 水道라는 독립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膀胱에 속한다고 하였다. 喻昌의 『醫門法律』에서는 上焦는 呼吸, 中焦는 水穀營衛, 下焦는 精으로 나누었는데 呼吸의 天氣와 水穀營衛는 宗氣로 통합되는 반면, 下焦는 精을 氣化하고 命門에 저장하여 三焦의 근본이 되므로 上中焦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手三焦나 足三焦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三焦의 기능과 작용을 고찰해보았을 때 三焦를 上下로 나누어 보는 시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여러 의가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그 중에서 세 서적을 선택하였다.

“靈樞曰，足三焦者，太陽之別也，並太陽之正，入絡膀胱約下焦，實則閉癰，虛則

101)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06.

102)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03) 喻昌. 醫門法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43.

遺溺.”<sup>104</sup>)(證治準繩)

“腎間動氣，足太陽將原氣別使三焦之氣，出足外側大骨下赤白肉際陷中爲原，上踝五寸，別入貫腸，出委陽，並太陽之正，入腹絡膀胱，下焦即膀胱也。原氣太陽絡於膀胱，節約膀胱，使溲便調也。以此三焦原氣行足，故名足三焦也。”<sup>105</sup>(太素)

“手三焦之經爲少陽，主於上，足三焦之腑爲膀胱，主於下，是二三焦也。”<sup>106</sup>(質疑錄)

『證治準繩』에서는 『靈樞』를 인용하여<sup>107</sup> 足三焦가 足太陽의 別로 足太陽의 正經과 더불어 膀胱에 入絡하여 下焦을 約束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實하면 癰閉의 증상이 나타나고 虛하면 遺尿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후대에 下焦病의 기본원리로 사용되었다. 이 문장은 『太素』에도 그대로 나오며 여러 의가들이 인용한 문장이다. 『太素』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註解하였다. 腎間動氣는 足太陽이 무릇 原氣別使이자 三焦之氣이니 足外側의 大骨下에 있는 赤白肉際의 陷中에서 出하여 原(原穴)이 되고 外踝위 五寸으로 올라가 별도로 臑을 꿰뚫고 올라가 委陽에서 出하여 太陽의 正經과 병합된 후 腹部로 들어가 膀胱에 絡하니 下焦는 즉 膀胱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原氣의 太陽은 膀胱과 연락되고 膀胱을 조절하고 括約하여 소변을 보도록 조절한다고 보았다. 이를 三焦原氣가 行하는 작용으로 요약하였으며 足三焦라고 名하였다. 이에 대해서 백유상은 楊上善이 腎間動氣로부터 十二經脈의 原穴로 氣가 선포되는 과정에서 足太陽經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였고 三焦를 통하여 原氣가 발로 행하는 것을 足三焦라고 이름하였다고 정리하였다.<sup>108</sup>)

張景岳 또한 『質疑錄』에서 三焦를 둘로 나누었다. 手三焦의 經은 少陽이고 上에서 주관하며 足三焦의 腑는 膀胱이 되고 下에서 主하니 이를 二三焦라고 지칭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상 여러 의가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의가들은 『靈樞·本輸』와 『難經』을 토대로 설명하였는데, 단순히 經絡學的 구분이 아니라 三焦와 膀胱의 관계나 營衛, 先天後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手足으로 나누었다

104) 胡國臣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117.

105)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446.

106) 張介賓 著, 安永敏 編譯. 質疑錄 譯疏. 서울. 한미의학. 2009. p.73.

107) 현존하는 『靈樞』에는 足三焦가 아닌 三焦로 되어 있다.

108)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p.104-105.

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능적으로 구분한다면 上中焦는 少陽相火가 주도하는 上中焦와 腎膀胱이 주도하는 下焦로 구분해 볼 수 있다. 上中焦는 營氣, 衛氣와 관련하여 後天穀氣와 관련이 있고, 下焦는 腎膀胱뿐 만 아니라 元氣의 성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手三焦와 足三焦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手三焦가 上部에만 국한되고 足三焦가 下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少陽相火는 上中焦를 기반으로 三焦에 영향을 주고 下焦元氣는 腎膀胱에 기반을 두고 上中焦에 영향을 주어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手三焦와 足三焦를 氣의 종류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先天之氣인 腎間動氣와 元氣는 足三焦에 속하고 後天之氣인 胃氣, 營氣, 衛氣, 宗氣는 手三焦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리적으로 이 둘을 나누어 본다면, 元氣는 恒動하고 少火에 속하고 後天穀氣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手三焦의 少陽相火는 壯火의 성질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인 면이 있으나 진단과 치료가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三焦의 종류	氣의 종류	屬絡 관계	水火배속	火의 종류
手三焦	上中焦	後天之氣(胃氣, 營氣, 衛氣, 宗氣)	手少陽經	少陽相火	壯火
足三焦	下焦	先天之氣(腎間動氣, 下焦元氣)	膀胱	腎水	少火

<표2> 手三焦와 足三焦의 구분



### 3. 三焦와 津液

『難經』의 元氣說이 도입된 이후로 三焦의 津液은 元氣에 의한 운행으로 설명하였다. 元氣는 水中之火로서 火로 인한 動性이 있고 이는 津液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行津液의 능력과 함께 少火로서 溫煦 작용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三焦는 營氣와 衛氣를 담당하여 營衛의 운행과 작용을 유도한다. 이에 대해서 홍승원은 氣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精微物質로서 水穀之氣와 呼吸之氣와 臟腑經絡의 生理功能의 기능적 動力 실체로서 營氣와 衛氣를 들었다.<sup>109)</sup> 송지청은 營氣와 衛氣의 추동은 心精인 神氣에 배속하고 肺精인 宗氣는 營衛가 經隧內에서만 운행되도록 수렴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10)</sup> 오재근은 脾胃의 水穀 運化 작용이 氣와 津液을 움직이는 핵심으로 보았고 이를 도와주는 命門之火가 脾胃를 돕는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運化와 관련하여서 營氣와 衛氣보다는 宗氣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營氣와 衛氣는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과 같이 멈추지 않고 전신을 흐른다고 하여 일종의 恒動 개념도 서술하였다.<sup>111)</sup> 문성식은 營衛를 연구함에 있어 일반적인 운행보다는 三焦가 역할에 주목하여 三焦가 營衛의 上下升降, 表裏內外升降 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12)</sup> 이상의 논문들을 보면 宗氣, 衛氣, 營氣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들이 있으며 어느 설이 맞다고 하기에 서로가 추구하는 관점과 범위가 달라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성식의 관점이 본 논고와 가장 유사한 관점으로 宗氣와 더불어 경맥을 순환하는 營衛의 運行보다는 氣와 津液이 바깥과 이어지는 出入升降의 개념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상기 논문들은 三焦의 元氣 개념은 논의하고 있지 않아 三焦의 기능이 營衛에 집중되었다고 보고 元氣 개념을 통해 三焦의 기본적인 기능을 설정하고 營衛의 기능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109) 홍승원, 엄정훈, 이상룡. 營衛氣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2. 19(2). pp.87-96.

110)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6). pp.45-49.

111) 오재근, 윤창렬.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4). pp.249-260.

112) 문성식, 강정수.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 혜화의학회지. 2000. 9(1). pp.105-112.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三焦의 元氣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丹田에서 발원하는 腎間動氣는 下焦에 영향력이 큰 반면, 後天穀氣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上中焦는 少陽相火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上中焦의 元氣는 胃에서 營衛가 생성되기 시작하여 膻中(氣海)에서 天氣와 합쳐져 宗氣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며 이를 後天元氣라고도 지칭하였다. 이 때 下焦의 元氣는 眞陽으로서 焦의 역할을 하며 소화흡수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전편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足三焦와 手三焦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를 三焦의 營氣와 衛氣에 적용함으로써 三焦의 津液이 出入升降하는 현상을 고찰해 보았다.

## 1) 『靈樞·決氣』의 氣와 津液

『靈樞·決氣』은 三焦와 관련된 氣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氣를 설명할 때, 氣와 津液, 血, 精을 함께 설명하였으나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氣와 津液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汗의 배출을 중요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衛氣와 함께 언급하였다.

“黃帝曰，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余意以爲一氣耳，今乃辨爲六名，余不知其所以然。岐伯曰，兩神相搏，合而成形，常先身生，是謂精。何謂氣。岐伯曰，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若霧露之溉，是謂氣。何謂津。岐伯曰，腠理發泄，汗出溱溱，是謂津。何謂液。岐伯曰，穀入氣滿，淖澤注於骨，骨屬屈伸，洩澤補益腦髓，皮膚潤澤，是謂液。何謂血，岐伯曰，中焦受氣，取汁變化而赤，是謂血。何謂脈。岐伯曰，壅遏營氣，令無所避，是謂脈。”<sup>113)</sup>(靈樞·決氣)

『靈樞·決氣』는 氣에 대해서 上焦가 開發하면 五穀味가 선포되고 皮膚를 훈증하여 몸을 가득 채우고 모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霧露가 흐르는 모양과 같다고 하였다.

113)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40.

즉, 『靈樞·決氣』에서는 氣의 형태가 안개가 자욱이 끼서 서서히 흐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三焦의 水道를 통해 흐르는 ‘氣’라고 보았으며 피부를 훈증하고 몸을 가득 채우고 모발을 윤택하게 한다고 보았다. ‘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腠理가 發泄하여 땀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液’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穀氣가 들어와 그득해지면 질퍽하고 윤택한 것이 뼈로 가서 뼈가 屈伸하게 되고, (穀氣의 津液이) 새어나오면서 윤택한 것은 腦髓를 補益하게 되며, 皮膚가 윤택해지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 중 氣에 대한 문장을 보면 五穀味를 선포하지만 안개의 형태를 유지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개는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사나울 때는 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靈樞·決氣』에서 말하는 三焦의 氣는 고요한 元氣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五穀味를 선포하는 것이나 훈증한다는 것도 元氣의 恒動性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津는 땀이 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液은 穀氣가 그득하여 점도가 있는 진액이 뼈와 腦髓를 적시는 것으로 묘사하여 霧露之氣와는 다르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흐르는 것이 가능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水穀皆入於口，其味有五，各注其海。津液各走其道，故三焦出氣，以溫肌肉，充皮膚，爲其津，其流而不行者爲液。天暑衣厚則腠理開，故汗出，寒留於分肉之間，聚沫則爲痛。天寒則腠理閉，氣濕不行，水下留於膀胱，則爲溺與氣。”<sup>114)</sup>(靈樞·五癰津液別)

『靈樞·五癰津液別』에서는 液을 其流而不行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津에 대해서는 上焦出氣하여<sup>115)</sup>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피부를 충만하게 하면 津이 되고 흐르되 不行하면 液이 된다고 하였다. 『靈樞·決氣』에서 정의한 氣와 상당히 유사하다. 『靈樞·五癰津液別』에서는 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다른 편을 참고해야 하는데 『靈樞·決氣』에서 汗出하는 현상을 津으로 정의한 것과 『靈樞·五癰津液別』에서 “天暑衣厚則腠理開，故汗出”라고 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편の内容을 종합하면 津은 汗出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津液을 정의한다면 津

114)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p.150-151.

115) 『太素』와 『甲乙經』은 三焦出氣가 아닌 上焦로 되어 있다. 『靈樞·決氣』같은 다른 편을 참고하였을 때 上焦出氣로 해석하였다.

은 其流而汗出로, 液은 其流而不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津液 중 津은 최종적으로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고 液은 흐르지만 배출되지 않고 뼈와 관절, 피부, 뇌수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

“上焦出氣，出胃上口，名曰衛氣”<sup>116)</sup>(太素)

“上焦出氣，宗氣也。宗氣出於喉嚨而行呼吸，其以溫分肉，養骨節，通腠理者，是衛氣化於宗氣也。”<sup>117)</sup>(類經)

‘上焦出氣’에 대해서 楊上善은 衛氣를 제시하였으며 張景岳은 이를 宗氣로부터 衛氣가 化한 것으로 더 세분화된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열어주는 주체는 衛氣라고 인식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이에 대해서 백유상은 “上焦의 경로가 비록 經絡의 노선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 氣가 안개처럼 퍼진다고 하였으며 이때 땀이 같이 나오게 된다. 땀이 나는 것을 단지 衛氣의 溫分肉 작용의 결과로만 볼 수도 있으나 이때 津液이 선포되면서 上焦의 氣가 같이 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衛氣의 溫分肉에 의한 津液 선포와 上焦의 霧露之氣, 즉 元氣가 함께 운행된다고 하였다.<sup>118)</sup> 이는 衛氣에 의한 津液의 흐름과 三焦의 霧露之氣의 흐름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津液이 흐르는 양태를 구분함으로써 작동하는 氣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천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자연히 증발하는 땀은 霧露之氣라고 볼 수 있고, 熱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땀은 衛氣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상에서도 ‘出氣’라는 표현과 땀이 나는 경우는 衛氣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者，內滲入於骨空，補益腦髓，而下流於陰股。陰陽不和，則使液溢而下流於陰，髓液皆減而下，下過度則虛，虛，故腰背痛而脛痠。陰陽氣道不通，四海閉塞，三焦不瀉，津液不化，水穀并行腸胃之中，別於迴腸，留於下焦，不得滲膀胱，則下焦脹，水溢則爲水脹，此津液五別之逆順也。”<sup>119)</sup>(靈樞·五癰)

116)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446.

117)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703.

118)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윤은경,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189.

## 津液別)

氣와 津이 한데 묶인다면 液과 관련하여서는 膏라는 개념을 살펴 볼 수 있다. 『靈樞·五癰津液別』에서는 五穀의 진액이 化습하여 膏가 된다고 하였는데 骨空으로 滲入한다는 설명이나 腦髓를 보익한다는 설명, 뒷부분에서 液이 넘친다는 표현, 髓液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膏는 『靈樞·決氣』에서 말한 液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液은 皮膚를 윤택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고 膏는 없다. 결과적으로 『靈樞·決氣』은 氣, 津, 液으로 구분하였고, 『靈樞·五癰津液別』에서는 津, 液, 膏로 나누었는데 종합하면 氣津과 液膏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氣津은 배출에 관여하며, 배출을 위한 出氣의 작용에는 衛氣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液膏는 우리 몸에 저장되는 성질이 있으며 關節, 骨髓나 腦髓에 이르기까지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액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1. 三焦의 元氣가 津液과 어떤 식으로 관여고 그 작용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고 전제를 둔다면, 『靈樞·決氣』에서 말한 五穀味를 선포하고 溫煦하고 潤澤한 霧露之氣는 元氣의 개념에 가깝다.
2. 津은 上焦의 衛氣가 出함으로써 전신에 선포되며 汗의 형태로 배출된다.
3. 液은 津과는 달리 流而不行하여 뼈나 關節, 腦髓, 皮膚에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衛氣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 液의 흐름은 元氣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위 또한 뼈와 뇌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4. 五穀의 津液이 化습되어 가장 많이 농축된 것은 膏라고 한다. 液과 매우 유사한데 皮膚를 윤택하게 한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液이 皮膚까지 도달한다면 膏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膏는 三焦와의 관련성은 적거나 그 부위가 한정적인 것을 말하고 液은 三焦의 작용과 관련이 있어 넓게 퍼져있다고 할 수

119)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52.

있다.

5. 소결 : 三焦에서 말하는 氣는 霧露之氣로 눈으로 보기에 津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리상 氣의 推動이 존재하며 氣의 종류에 따라 推動의 상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上焦의 氣가 元氣의 일종이라면 先天元氣에 의해 恒動의 작용으로 體表를 溫厚하면서 조금씩 피부를 통해 증발되는 霧露之氣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대로 衛氣와 같은 後天元氣가 필요한 경우는 대량의 汗이 필요할 때이다. 이때는 後天元氣인 衛氣가 작동하여 腠理가 크게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하나의 가설로서 手三焦의 少陽相火가 衛氣를 다스리고 足三焦의 元氣가 일반적인 津液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래 표는 三焦에 흐르는 氣와 津液의 배치도를 통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中焦와 下焦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보고 고찰해 볼 것이다.

	氣의 종류	汗出 작동원리	배출의 형태	성질	위치
手三焦(上)	後天元氣(衛氣)	少陽相火	汗	일시적 120)	腠理
足三焦(上)	先天元氣	腎間動氣	霧露	지속적	(臍中)

<표3> 手三焦(上)와 足三焦(上)

## 2) 上焦 衛氣와 津液

衛氣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역할을 찾을 수 있다. ‘衛’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外邪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 肌肉을 溫陽하는 기능, 腠理를 開闔하여 汗을 내는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순환의 관점에서는 衛氣는 津液을 선포하며 水穀의 精微를 전

120) 衛氣는 宗氣로부터 恒動性을 얻으므로 일시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宗氣는 呼吸을 통해 天氣를 받아 완성되며, 呼吸운동 또한 腎間動氣로부터 발원한 것이므로 宗氣는 元氣의 일종으로도 취급된다. 後天穀氣는 元氣의 도움을 받아야 완전체의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營氣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표상에서는 後天元氣가 아닌 後天穀氣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시적’이라는 구분을 하였다.

달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위해 衛氣는 하루 50회씩 순환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앞서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존 논문에서는 衛氣의 기능이나 작용, 운행에 대해서는 연구하였으나 衛氣의 작동 기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三焦元氣는 腠理와 衛氣와 밀접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三焦元氣와 腠理의 상태를 중심으로 衛氣의 작동 기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衛氣者，所以溫分肉，充皮膚，肥腠理，司關闔者也。”<sup>121)</sup>(靈樞·本藏)

우선 衛氣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려고 한다. 『靈樞·本藏』은 衛氣가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腠理를 살찌우고 關闔을 맡는다고 하였다. 衛氣가 어떤 원리로 關闔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靈樞·本藏』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素問·瘧論』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衛氣者，晝日行於陽，夜行於陰，此氣得陽而外出，得陰而內薄，內外相薄，是以日作。”<sup>122)</sup>(素問·瘧論)

『素問·瘧論』에서는 衛氣는 밤과 낮의 행로가 다르며, 이 氣는 得陽而外出, 得陰而內薄한다고 하였다. 이를 衛氣의 關闔작용과 연계해 본다면 衛氣가 得陽하면 腠理가 열려 땀이 나고 得陰하면 안으로 內薄하여 腠理가 닫히고 진액이 안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衛氣는 비록 溫厚작용을 하는 존재이나 體表를 담당하기에 주변의 陰陽寒熱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天暑衣厚則腠理開，故汗出，寒留於分肉之間，聚沫則爲痛。天寒則腠理閉，氣濕<sup>123)</sup>不行，水下留於膀胱，則爲溺與氣。”<sup>124)</sup>(靈樞·五癰津液別)

121)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75.

122)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78.

123) 『太素』에는 氣滯不行으로 되어있다.

124)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51.

『靈樞·五癰津液別』는 환경에 따른 衛氣의 關闔작용을 살필 수 있다. 날씨가 더울 때는 得陽하여 주리가 열리고 땀이 나며, 寒邪가 分肉之間에 머무르면 沫(진액의 일종)이 凝聚하여 痛症이 되며, 날씨가 추울 때는 腠理가 닫혀 氣滯不行하여 水가 발생하며 膀胱으로 흘러 小便이 된다고 보았다. 『靈樞·五癰津液別』 역시 衛氣의 關闔작용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衛氣는 밤낮에 따라 陰分과 陽分을 이동하며 순환하는 특성상 內外로도 이동하는데 이 또한 得陰得陽<sup>125)</sup>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今厥氣客於五藏六府，則衛氣獨衛其外，行於陽，不得入於陰，行於陽則陽氣盛，陽氣盛則陽蹻陷，不得入於陰，陰虛，故目不瞑。”<sup>126)</sup>(靈樞·邪客)

『靈樞·邪客』에서는 厥氣가 五臟六腑에 머무른 즉 衛氣가 홀로 밖을 지켜 陽分을 行하고 陰分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陽分을 行한 즉 陽氣가 盛하고 陽氣가 盛한 즉 陽蹻脈이 陷하여 陰分에 들어갈 수 없어 陰이 虛해지니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또한 衛氣의 內外의 이동으로 인한 현상으로 得陽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靈樞·邪客』에서는 得陽의 원인으로 厥氣를 제시하였는데 厥氣는 外邪라기 보다는 체내의 음양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內邪로 上逆하기도 하고 下行하기도 하는 등 일정한 규칙없이 돌아다니는 氣를 말한다.<sup>127)</sup> 이어서 처방으로 半夏湯一劑를 제시하였는데<sup>128)</sup> 厥氣로 인한 증상은 일종의 津液病에 가까운 것으로 厥氣는 津液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陽勝則身熱，腠理閉，喘麤爲之俛仰，汗不出而熱，齒乾以煩冤腹滿，死，能冬不能夏。陰勝則身寒汗出，身常清，數慄而寒，寒則厥，厥則腹滿，死，能夏不能冬。此陰陽更勝之變，病之形能也。”<sup>129)</sup>(素問·陰陽應象大論)

125) 이하 得陰得陽은 衛氣가 內因, 外因에 의해서 陰陽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126)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2.

127) 『黃帝內經靈樞集注』“厥氣者，虛氣厥逆於臟腑之間。”(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1.)

128) 『靈樞·邪客』“黃帝曰，善。治之奈何。伯高曰，補其不足，瀉其有餘，調其虛實，以通其道，而去其邪，飲以半夏湯一劑，陰陽已通，其臥立至。”(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2.)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陽勝하면 身熱하고 腠理가 닫히고 거칠게 喘息을 하면서 몸을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열이 나고 齒가 건조하면서 괴롭고 원통하며 腹滿하여 죽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겨울에는 살 수 있고 여름에는 죽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陰勝하면 身寒하고 땀이 나오고 몸이 항상 淸涼하고 수시로 떨리고 추위를 탄다. 추워진 즉 厥하고 厥한 즉 腹滿하여 죽는다고 하였다. 이어서 여름에는 살 수 있고 겨울에는 죽는다고 하였다. 陽勝陰勝 또한 得陽得陰의 상태로 볼 수 있는데 得陽하여 陽勝하다라도 겨울의 陰氣을 얻으면 살 수 있고 得陰하여 陰勝한 상태여도 여름의 陽氣를 얻으면 살 수 있다.

“陽勝者，則爲熱，陰勝者，則爲寒，寒則眞氣去，去則虛，虛則寒。搏於皮膚之間，其氣外發，腠理開，毫毛搖，氣往來行，則爲癢，留而不去，則痺。衛氣不行，則爲不仁。”<sup>130)</sup>(靈樞·刺節眞邪)

『靈樞·刺節眞邪』에서도 陽勝하면 熱이 되고 陰勝하면 寒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이후 陰勝陽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陰勝하여 寒한 즉 眞氣가 떠나고 (眞氣가) 떠나면 虛해지고, 虛해지면 차가워진다고 하였다. 이후 (邪氣가)<sup>131)</sup> 皮膚의 사이에서 두드리면 그 氣(邪氣)<sup>132)</sup>가 밖으로 發하며 腠理가 열리고 毫毛가 요동치고 氣가 왔다갔다하게 된 즉 癢症이 된다고 하였다. 이후 그 氣가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痺症이 되고, 衛氣가 行하지 않으면 不仁한다고 하였다. 『靈樞·刺節眞邪』에서는 得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셈인데, 得陰하여 陰勝하면 차가워져 眞氣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이는 곧 元氣의 虛症으로 볼 수 있다. 이후 腠理가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邪氣가 皮膚의 사이를 搏動하여 腠理가 열리면서 각종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元氣(眞氣)의 부족으로 邪氣가 妄動하

129) 王冰 註解. 四部備要『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67.

130) 王冰 註解. 四部備要『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65.

131) 『靈樞·刺節眞邪』는 주로 邪氣와 眞氣의 대립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다. 『靈樞·刺節眞邪』의 다른 문장들에서는 주어가 邪氣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2) “寒氣既盛，則神氣離去，故寒獨留皮膚之間，以寒爲病本也。其氣發，陰動毫間皮中，因此爲癢。”(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p.443-444.) 『太素』에서는 邪氣를 寒邪로 인식하였고 寒邪의해 陰이 피부중에서 動하는 것으로 주해하였다.

여 주리가 열린다고 해석한 것이다.

“衛氣者，出其悍氣之慄疾，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晝日行於陽，夜行於陰，常從足少陰之分間，行於五臟六腑。”<sup>133)</sup>(靈樞·邪客)

『靈樞·邪客』에서는 衛氣는 悍氣의 慄疾한 성질을 출하여 먼저 四末과 分肉, 皮膚 사이에 行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낮에는 陽分을 行하고 밤에는 陰分을 行하는데 항상 足少陰의 分間을 따라 五臟六腑로 行한다고 하였다. 衛氣가 慄疾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行於陰할 수 있는 것은 得陽得陰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다만 衛氣의 기본성질은 外部로 宣布되려는 것이므로 得陽得陰의 비율은 반반이 아니라 得陽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衛氣는 腠理의 개합과 관련이 있고 得陰得陽을 하면서 陰分과 陽分을 이동한다. 이동 시에 津液의 이동이 발생하고 腠理가 열려있을 때 得陽하면 땀이 난다고 할 수 있다. 腠理가 닫혀있을 때는 衛氣가 가더라도 發熱하지만 땀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得陰으로 인한 陰勝의 경우 眞氣의 虛症, 곧 元氣不足으로 설명하였다. 이 때 元氣가 부족하면 邪氣의 망동이 일어나 腠理가 열린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元氣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得陰을 한다면 腠理가 열려있지 않아 땀이 나지 않고 浮腫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金匱要略』에서는 “腠者，是三焦通會元真之處。理者，是皮膚臟腑之紋理也。”<sup>134)</sup>라고 하여, 腠理에 대해서 衛氣뿐만 아니라 三焦元氣의 상태를 강조하였다. 이는 元氣의 상태가 腠理의 開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腠理의 開闔은 衛氣보다 元氣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133)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1.

134) 김정범 편저. 금궤요략변석. 한의문화사. 2001. p.30.

三焦元氣	腠理	得陰得陽	증상
元氣不足	開	得陰	汗出, 冷汗
元氣不足	開	得陽	汗出, 熱汗
元氣有餘	闔	得陰	無汗, 浮腫
元氣有餘	闔	得陽	無汗, 發熱

<표4> 三焦元氣의 상태에 따른 腠理변화 및 증상

<표4>은 三焦의 元氣에 따른 腠理의 開闔여부와 주변 환경이나 內因에 의한 得陰得陽의 상황을 표로 정리하였다. 모든 상황에 딱 맞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 3) 中焦 營氣와 津液

中焦의 기능은 주로 脾胃의 消化 기능과 관련이 많다. 中焦의 消化작용은 ‘焦’의 태운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少火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焦’의 근원은 元氣의 작용으로, 元氣의 陽性에 의해 ‘焦’하여 消化에 관여한다. 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편은 『靈樞·營衛生會』라고 할 수 있다.

“中焦亦並胃中，出上焦之後，此所受氣者，泌糟粕，蒸津液，化其精微，上注於肺脈，乃化而爲血，以奉生身，莫貴於此，故獨得行於經隧，命曰營氣。”<sup>135)</sup>(靈樞·營衛生會)

“中焦者，在胃中脘，不上不下，主腐熟水穀。其治在臍傍。”<sup>136)</sup>(難經·31難)

“三焦之氣，主焦熟水穀，分別清濁，若不調平，則生諸病。”<sup>137)</sup>(諸病源候論)

135)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06.

136) 금경수, 송지정 역. 國譯 難經. 파주. 집문당. 2015. p.162.

137)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58.

“蓋三焦元氣，因脾胃受穀氣以泌糟粕，蒸津液，而清氣上注於肺者，此地氣上爲雲也。肺中之清氣，因脾胃穀氣所注。”<sup>138)</sup>(本草述鉤元)

『靈樞·營衛生會』에서는 糟粕을 泌別<sup>139)</sup>하여 津液을 흡수하고 津液을 蒸하여 그 精微을 變化시키는 일종의 소화작용을 통해 水穀의 精微를 만들고 이를 肺脈으로 보내 血을 만든다고 하였다. 『難經』에서는 中焦가 主腐熟水穀한다고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諸病源候論』은 『難經』과 유사하게 三焦之氣가 水穀을 焦熟하고 清濁을 分別한다고 하여 『難經』의 설명에 津液을 다스리는 기능을 더하였다. 『本草述鉤元』에서는 三焦元氣는 脾胃가 穀氣를 받음으로써 糟粕을 泌別하고 津液을 蒸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三焦가 단독으로 소화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脾胃의 기능으로 인하여 소화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三焦의 소화기능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면, 三焦의 ‘焦’를 水穀을 腐熟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泌’와 ‘蒸’으로 진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中焦는 ‘焦’함으로써 糟粕으로부터 津液을 흡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津液을 다시 ‘蒸’함으로서 清濁을 分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焦의 역할은 脾胃를 보조하는 것으로, 음식물을 직접 ‘消’하거나 ‘化’ 또는 ‘磨’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脾胃와는 기능이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sup>140)</sup>(靈樞·邪客)

『靈樞·邪客』에서는 營氣는 그 津液<sup>141)</sup>을 泌하여 脈으로 흐르게 하면 化하여 血이 된다고 하였다. 이 때 津液은 糟粕과 구분되는 것으로 앞서 보았듯이 糟粕으로부터 흡수된 津液이다. 營氣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흡수된 津液을 脈으로 보내는 것으로 血의 생성에 관여하는데 脈을 통한 津液의 확산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138)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pp.655-656.

139) 泌는 ‘비’라고 입을 때, 샘물이 솟아 졸졸 흐르는 모양을 뜻한다. 津液을 짜내는 모습.

140)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1.

141) 『靈樞·邪客』에서는 糟粕과 津液을 구분하였다. “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41.)

“上焦出氣，以溫分肉，而養骨節，通腠理。中焦出氣如露，上注谿谷，而滲孫脈，津液和調，變化而赤爲血。”<sup>142)</sup>(靈樞·癰疽)

“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若霧露之溉，是謂氣。”<sup>143)</sup>(靈樞·決氣)

『靈樞·癰疽』에서는 中焦가 出氣하면 ‘露’와 같은 형태로 氣가 흐르는데, 谿谷<sup>144)</sup>으로 上行하여 孫脈에 滲入한다고 하였다. 이후 津液이 調和로우면 變化하여 赤色이 되어 血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靈樞·決氣』에서 上焦가 열리면 氣가 ‘霧露之溉’처럼 宣布되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다. 둘 다 三焦의 元氣가 작용하는 모습을 津液의 상태로 표현하였는데 中焦의 元氣는 ‘露’와 같다고 한 것이다. 다만 上焦의 안개와는 다르게 이슬의 형태를 보이며, 津처럼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孫脈까지 간다고 할 수 있다. 孫脈까지 간 이후 津液의 調和와 變化하여 赤色이 되어 血이 되는 과정은 營氣의 작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營氣는 津液보다 脈內의 血을 관장하며 12경맥을 순환한다는 점을 볼 때 孫脈에 이르러 생성되는 血은 中焦 元氣에 의한 작용으로 추론하였다. 즉 中焦의 元氣가 다스리는 영역은 비교적 바깥에 존재하는 絡脈이나 孫脈에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1. 中焦는 ‘焦’의 의미를 살려 水穀을 腐熟하여 소화를 돕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脾胃을 도와 소화를 시키는 것보다 津液의 흡수와 이동을 더 강조하였다.
2. 中焦로부터 흡수된 津液은 中焦의 元氣에 의해 露의 형태로 宣布될 수 있으며, 谿谷(分肉之間)을 지나 孫脈으로 滲入하게 된다. 中焦의 元氣는 경맥보다 바깥에 존재하는 孫脈이나 絡脈의 흐름에도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142)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90.

143)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40.

144) 分肉之間

3. 營氣는 血의 흐름을 조절하여 經脈을 통해 四肢와 五臟六腑 전체를 순환시킨다. 中焦에서 흡수된 진액을 蒸한 뒤에 肺脈으로 보내어 血을 생성시킨다. 胸部에 이르러서는 宗氣와 더불어 온몸을 運行하게 된다.

	氣의 종류	작동원리	津液의 형태	성질	위치
手三焦(中)	後天元氣(營氣)	少陽相火	血	일시적	經隧, 五臟六腑
足三焦(中)	先天元氣	腎間動氣	露	지속적	雞谷, 孫絡(上腹)

<표5> 手三焦(中)와 足三焦(中)

#### 4) 下焦 元氣와 津液

##### ① 下焦의 영역

下焦는 三焦 중에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三焦를 胸部, 上腹部, 下腹部로 나누는 방법에서는 下焦는 下腹部이 속하나 『內經』에서는 下焦와 下腹部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없었다. 足厥陰肝經의 病變이나 膀胱과 관련된 小便질환에 의해 少腹痛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병리적인 연결점은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생리적인 표현에서는 下腹部를 의미하는 표현은 없었다. 이는 후대에서도 두드러지는데 太陽蓄血證이나 婦人病, 大小便 질환 등 下焦와 下腹部를 연결하는 고리점은 대부분 병리적 관점이었다. 이에 三焦의 구역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難經』을 살펴보았다.

“三焦者, 何稟何生何始何終? 其治常在何許? 可曉以不? 然,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臍中,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者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傍, 下焦者,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內, 以傳道也, 其治在臍下一寸, 故名曰三焦, 其腑在氣街.”<sup>145)</sup>(難經·31難)

『難經·31難』에서도 본래의 구역은 上焦는 心下에서 膈을 지나 胃上口에 이어지고, 中焦는 胃中脘 부분, 下焦는 특별히 지칭하지 않고 膀胱上口에 닿는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구분법과 좀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면 『靈樞·營衛生會』를 기준<sup>146)</sup>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下焦의 경우 『靈樞·營衛生會』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難經·31難』에서도 膀胱에서 끝난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치법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구분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上焦는 膻中, 中焦는 臍傍, 下焦는 臍下一寸을 배속하였는데 오늘날의 上焦가 胸部, 中焦가 上腹部, 下焦가 下腹部로 구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며 이는 『難經』의 구분법이 병리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47)</sup>

	『靈樞·營衛生會』	『難經·31難』 생리 기준	『難經·31難』 병리 및 치료 기준
上焦	上焦出於胃上口, 並咽以上, 貫膈而布胸中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其治在膻中
中焦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在胃中脘	其治在臍傍
下焦	別迴腸, 注於膀胱	當膀胱上口	其治在臍下一寸

<표6> 『靈樞·營衛生會』와 『難經·31難』의 三焦 영역 비교

下焦의 기능 또한 『內經』에서 논란이 많은데 『靈樞·營衛生會』과 『靈樞·平人絕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sup>148)</sup>(靈樞·營衛生

145)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編,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P.86.

146) 표4 참조

147) 『醫學入門』에서는 “上焦, 玉堂下一寸六分, 直兩乳間陷處. 中焦, 臍上中脘. 下焦, 臍下膀胱上口.”라고 하여 생리 기준과 병리 기준을 통합하였다.(李梴.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115.)

會)

“上焦泄氣，出其精微，慄悍滑疾，下焦下漑諸腸。”<sup>149)</sup>(靈樞·平人絕穀)

『靈樞·營衛生會』에서는 下焦가 廻腸(大腸)에서 분별하여 (진액을) 膀胱으로 보내 滲入한다고 하였다. 이어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水穀은 항상 胃中에서 모여서 있으면서 糟粕이 다 만들어지면 모두 大腸으로 下行하면서 下焦가 완성된다고 하였다. 이때 (糟粕이) 스며들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이를 濟泌別汁<sup>150)</sup>하여 下焦를 따라 膀胱에 스며든다고 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糟粕이 大腸으로 내려오는 과정 전체가 下焦가 작용하는 범위로 보인다. 『靈樞·平人絕穀』에서도 ‘下焦下漑諸腸’라고 하여 下焦가 諸腸들과 水道로 이어져 있다고 보았다. 下焦가 腸胃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후대 의가들도 연구하였다.

“大小腸之系，自膈下，與脊膂，連心腎膀胱相系，脂膜筋絡，散布包裹。然各分紋理，羅絡大小腸與膀胱，其細脈之中，乃氣血津液流走之道也。”<sup>151)</sup>(醫學入門)

『醫學入門』에서는 大小腸의 系는 膈下에서부터 脊膂와 함께 心, 腎, 膀胱의 相系에 이어지며, 脂膜과 筋絡이 흠어지며 감싸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紋理가 나누어지고 大小腸과 膀胱을 그물처럼 이어주는데, 그 細脈의 가운데는 氣血과 津液이 흐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大小腸系과 心腎膀胱系를 척추를 끼고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脂膜이 감싸고 있으며 細脈이 그물처럼 서로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 『醫學入門』에서 언급한 細脈에 氣血津液이 흐른다는 점이나 脂膜 개념은 三焦의 水道 개념과 三焦의 脂膜說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醫學入門』은 腹部의 구조에 대해서 腸胃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下焦의 영역이 腸胃에 골고루 이어져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醫學入門』처럼 腸胃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이 아닌, 一點을 기준

148)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06.

149)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43.

150) ‘濟’는 건지다라는 뜻으로 쓸만한 것을 건져내는 것으로 보았고 ‘泌’는 샘물이 솟아 졸졸 흐르는 모양이다. 종합하면 糟粕 중에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51) 李梴. 編註醫學入門 編著.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110.



으로 中焦와 下焦를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凡胃中腐熟水穀，其滓穢，自胃之下口，傳入於小腸上口，自小腸下口，泌別清濁，水液入膀胱上口，滓穢入大腸上口。”<sup>152)</sup>(醫學入門)

水穀並居於胃中，傳化於小腸，當臍上一寸水分穴處，糟粕由此別行回腸，從後而出，津液由此別滲膀胱，從前而出。膀胱無上口，故云滲入。”<sup>153)</sup>(類經)

『醫學入門』에서는 小腸下口에서부터 清濁이 泌別되어 水液은 膀胱上口에 이어지고 滓穢는 大腸上口에 이어진다고 하였다. 『類經』은 『靈樞·營衛生會』를 재해석하여 水穀이 臍上一寸에 있는 水分穴을 기준으로 小腸의 泌別清濁의 기능으로 인해 廻腸(大腸)과 膀胱으로 나누어 진다고 하였다. 이를 분석해 보며 『醫學入門』은 대소장이 만나는 關門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關門 이하만 泌別清濁을 한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大小腸의 生理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전술하였듯이 『醫學入門』은 반드시 大腸에서만 氣血津液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大小腸의 系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찰해 본다면 關門의 개념은 『難經』이 下焦에 대해서 ‘其治在臍下一寸’이라고 한 것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關門은 생리적 구분점이 아닌 병리적인 구분점에 가까운 것으로 『難經』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類經』은 체표의 水分穴을 기준으로 나눈 것도 비슷한 유형으로 張景岳은 小腸이 泌別清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難經』이 ‘其治在臍下一寸’라고 한 것을 臍上一寸에 있는 水分穴로 기준점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內經』을 기준으로 본다면 下焦의 생리적인 부분은 諸腸의 糟粕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津液을 흡수하는 넓은 범위의 작용으로 볼 수 있고 津液을 다스리는 下焦 元氣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醫學入門』은 이를 구체적인 해부학 개념을 도입하여 大小腸之系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많은 의가들이 一點을 기준으로 下焦를 구분하였는데 이는 『難經』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病變과 治法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52) 李梴. 編註醫學入門 編著.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103.

153)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66.

## ② 膀胱과 腎

下焦는 下焦如瀆하여 決瀆之官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津液을 다스린다. 또한 『內經』은 三焦와 腎·膀胱의 관계를 통해 決瀆之官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靈樞·本輸』은 下焦와 관련하여 가장 관계가 깊은 臟腑인 腎·膀胱과 少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腎合膀胱，膀胱者，津液之府也。少陽屬腎，腎上連肺，故將兩藏。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屬膀胱，是孤之府也。”<sup>154)</sup>(靈樞·本輸)

『靈樞·本輸』에는 ‘少陽屬腎，腎上連肺’라고 하여 腎·膀胱에 少陽과 肺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腎과 肺의 관계는 『素問·水熱穴論』에서 “其本在腎，其末在肺，皆積水也.”<sup>155)</sup>라고 하여 積水에 대해서 서로 本末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少陽에 대해서는 역대 의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면이 있다. 少陽의 경우 『太素』와 『甲乙經』에는 少陰으로 되어 있고 楊上善는 “足少陰脈貫肝入肺中，故曰上連也.”<sup>156)</sup>라고 하여 足少陰經으로 해석하였다. 周學海는 少陽屬腎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앞뒤로 결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文理를 따지면 太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57)</sup>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 의가들은 少陽을 기준으로 해설하였으며 주로 三焦의 少陽相火를 少陽으로 해석하였다.

“少陽，三焦也。三焦之正脈指天，散於胸中，而腎脈亦上連於肺，三焦之下屬於膀胱，而膀胱爲腎之合，故三焦亦屬乎腎也。然三焦爲中瀆之府，膀胱爲津液之府，腎以水臟而領水府，理之當然，故腎得兼將兩藏。將，領也。兩藏，腑亦可以言臟也。『本藏篇』曰，腎合三焦膀胱。其義即此。”<sup>158)</sup>(類經)

154) 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20.

155) 王冰撰.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156)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p.136.

157) “少陽二字，前人皆以三焦爲解經，固明言三焦屬膀胱矣。但揆此處上下文義，似當作太陽，並無深義蓋果指三焦，則少陽之上必有脫字，兩臟之下必有一腑也。明於文理者，試詳思之將義見前節。”(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1999. p.123.)

少陽에 대한 해설은 張景岳이후 대부분 張景岳의 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張景岳은 三焦을 手三焦와 足三焦로 나누었는데, “少陽은 三焦이다. 三焦의 正脈은 天을 가리키고 胸中으로 흠어진다. 그리고 腎脈 역시 위로 肺에 이어지고, 三焦의 下는 膀胱에 속한다. 膀胱은 腎의 습인 故로 三焦 역시 腎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이때 正脈은 手三焦에 해당하는 手少陽三焦經을 의미한다. 手少陽經이 胸中(膻中)에 흠어지는 것과 足少陰腎脈의 流注가 肺로 가는 것이 겹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手三焦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手三焦의 少陽으로 인해 腎과 肺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으로 여러 의가들의 의견 또한 대동소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腎肺의 水液기능은 三焦의 少陽生氣를 통해 이동하며 근원은 腎의 元氣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水病이 발생했을 때 腎肺의 기능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三焦의 元氣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黃帝問曰，少陰何以主腎，腎何以主水。岐伯對曰，腎者，至陰也，至陰者，盛水也。肺者，太陰也，少陰者，冬脈也。故其本在腎，其末在肺，皆積水也。帝曰，腎何以能聚水而生病。岐伯曰，腎者，胃之關也。關門不利，故聚水而從其類也。上下溢於皮膚，故爲附腫。附腫者，聚水而生病也。”<sup>159)</sup>(素問·水熱穴論)

“勇而勞甚，則腎汗出，腎汗出達於風，內不得入於藏府，外不得越於皮膚，客於玄府，行於皮裏，傳爲附腫，本之於腎，名曰風水。所謂玄府者，汗空也。”<sup>160)</sup>(素問·水熱穴論)

“故水病下爲附腫，大腹，上爲喘呼，不得臥者，標本俱病，故肺爲喘呼，腎爲水腫，肺爲逆不得臥，分爲相輸俱受者，水氣之所留也。”<sup>161)</sup>(素問·水熱穴論)

158)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66.

159) 王冰撰.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160) 王冰撰.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161) 王冰撰.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538.

『素問·水熱穴論』의 첫 인용문에서는 腎肺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水病에 대해서, 腎은 胃之關으로 關門이 통하지 않으면 聚水가 그 종류를 따른다고 하였다. 이에 皮膚로 上行 및 下行하는 故로 附腫이 된다고 하여 聚水에 의한 附腫을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風水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일을 용써서 고되게 하면 腎汗을 흘리는데, 腎汗을 흘릴 때 風에 상하면 (水液)이 안으로는 臟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는 皮膚를 넘지 못하여 玄府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皮膚의 안쪽을 行하여 傳해지면 附腫이 된다고 하였다. 이 병의 뿌리는 腎에 있어 이름하여 風水라고 하였다. 이상의 두 인용문은 모두 皮膚의 아래쪽이 붓는 附腫을 주요한 증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肺의 標證이면서 三焦의 異상이기도 하다.

마지막 인용문에서는 腎肺의 標本俱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水病이 아래로는 附腫이 되고 腹이 커지며, 위로는 喘呼하고 눕지 못하는 것을 腎肺의 標本俱病이라고 하였다. 이 때 肺의 증상은 喘呼이고 腎의 증상은 水腫이 되는데 肺는 氣逆하여 눕지 못한다고 해설하였다.

風水病에 대한 玄府說을 토대로 이상을 증상을 종합해 본다면, 체외부로 넓은 부위에 나타나는 附腫은 三焦의 腠理에 邪氣가 침범하여 腠理가 막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내측의 水氣 또는 水液의 이상은 肺腎의 이상으로 水液이 臟腑로 가지 못하여 복부나 흉부로 넘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腠理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臟腑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不通으로 인한 증상이 水病이라고 본다면 三焦의 元氣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비록 腎肺가 水病의 本과 標이기는 하나 腎과 肺를 이어주는 三焦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氣의 종류	작동원리	津液의 형태	성질	위치
手三焦(下)	腎主水(至陰)	少陽相火	水氣 또는 水液	일시적	玄府, 胸腹(肺腎)
足三焦(下)	先天元氣	腎間動氣	汁	지속적	諸腸(臍下)

<표7> 手三焦(下)와 足三焦(下)

## 5) 소결

이상의 내용은 營氣와 衛氣에 대해서 營衛 자체에 대해서만 연구하기보다는 三焦의 元氣 개념을 도입하여 營氣와 衛氣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주로 元氣와 營衛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三焦에 대해서는 전편의 고찰을 통해 腎間動氣로부터 발생하는 先天元氣와 水穀으로부터 흡수하는 後天之氣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三焦의 先天元氣는 주로 腎·膀胱과 연결되는 足三焦의 개념으로 보았고, 三焦의 後天元氣는 手少陽經의 少陽相火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津液을 살펴본 결과, 先天과 後天 두 가지 氣에 의해 津液이 움직이며 각각의 氣는 섞였을 때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몇몇 증상이나 관찰을 통해 先天之氣와 後天之氣를 구분해 볼 수 있고 보았다. 上焦의 경우 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량의 땀이 자연 증발하는 霧露의 상태일 때는 先天元氣의 陽性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땀이 많이 나와서 눈에 보이는 상태라면 後天元氣에 속하는 衛氣가 得陽하여 衛氣의 關闔 작용에 발동하여 腠理가 열리고 땀이 대량으로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윤정훈의 說과도 유사한데 윤은 三焦의 성쇠를 腠理의 치밀도, 腹診의 탄력도, 食慾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傷寒病을 三焦 중심으로 치료하려고 하였다.<sup>162)</sup> 본 논고와 비슷한 점은 三焦元氣의 성쇠와 腠理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점이다. 윤은 三焦元氣의 성쇠가 三焦의 腠理나 복부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는데 동의하는 바로, 땀이나 腠理 뿐만 아니라 玄府의 개념이 적용 가능한 각종 津液의 출입처는 三焦의 元氣가 開闔 여부를 결정하여 出入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衛氣에 대해서 고찰해보는다면 衛氣의 得陽은 주로 上焦의 ‘出氣’라고 표현되었으며, 上焦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三焦의 다른 이름이 ‘三關’<sup>163)</sup>인 것처럼 三焦가 출입처의 關門의 역할을 하면서 衛氣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中焦의 경우 ‘焦’의 의미를 살려 소화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津

162) 윤정훈. 三焦의 盛衰와 病位에 근거한 傷寒方 해석방법 新考.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 27(3). pp.273-279.

163) 『外臺秘要』“刪繁論曰, 夫三焦者, 一名三關也.”(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3.)

液을 흡수하고 수송하는 작용에 더 큰 역할이 있다. 이때 營氣의 작용을 통해 津液을 움직이는데 이 진액은 血이 되고 經隧를 따라 흐른다. 經隧를 따라 胸部에 이르면 宗氣가 되어 온몸을 순환하는 것이다. 이 때 中焦의 元氣는 消化에 도움을 주며 少火生氣의 少火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眞陽의 역할에 가깝고 中焦에 국한해서 본다면 中焦의 元氣는 津液(또는 血)을 體表의 孫脈까지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上中焦가 營氣와 衛氣를 통하여 津液을 적극적으로 산포한다면 下焦의 경우 腎間動氣에 의해 津液이 완만하게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元氣의 陽性 즉, 元陽이 중요하며 下焦의 경우 後天之氣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大小腸으로부터 濟泌別汁하는 역할을 下焦가 한다고 보았는데, 下焦의 元氣는 복부의 津液(汁)과 관련이 깊다.

水病의 기본 증상은 胛腫으로 下焦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下焦는 腎膀胱 및 肺와 더불어 聚水의 病機를 일으켜 胛腫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후대에서는 水病이 피부의 胛腫까지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肺腎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少陽(手少陽)이 腎·膀胱에 속한다는 것을 근거로 三焦를 통해 病機를 설명하였다.

## 4. 三焦의 元氣, 津液 病證

서두에 三焦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대 순으로 서적을 선정하여 각 의가들의 三焦論 및 辨證방법을 고찰하고 처방 및 약물 등의 치법을 정리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조학준과 백유상은 시대별로 중요한 서적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64)165)</sup> 본 논고에서는 조금 다르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內經』과 『難經』에 기반을 두고 三焦학설을 연구한 서적을 대상으로 삼았다. 三焦와 命門火를 연계하거나 少陽相火를 위주로 三焦를 파악한 서적은 三焦 본연의 모습이 희석되었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難經』은 三焦原氣說의 시초로 三焦의 생리는 언급한 반면, 病理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고 할 수 있어 한계가 있는데, 후대의 『中藏經』<sup>166)</sup>은 『難經』을 기반으로 三焦病의 초기 辨證 체계를 만들어 三焦辨證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후대의 『刪繁方』은 『中藏經』을 기반으로 하여 처방을 補入하였고 이는 『千金方』과 『外臺秘要』에 이어졌다. 후대의 張元素는 『中藏經』을 기반으로 辨證과 治法을 연구하였는데 張元素에 이르러 三焦의 寒熱虛實辨證과 治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의서들은 모두 『內經』과 『難經』을 기반으로 三焦의 寒熱虛實을 파악하여 三焦病을 치료하려고 하였다. 三焦의 寒熱虛實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논고에서는 元氣와 津液으로 三焦를 연구하였으므로 元氣와 津液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元氣의 성쇠는 寒熱과 밀접하고 三焦의 開闔기능(出入升降)은 津液의 정

164) 조학준. 唐代 以前の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2). pp.87-102.

165)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윤은경,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187-202.

166) 『中藏經』에 대해서 박현국과 조면휘는 『中藏經』이 僞書일 가능성은 있으나 『內經』을 기본 바탕으로 虛實寒熱生死逆順의 八種의 診斷 및 治法과 水火法, 個人의 임상경험을 결부시킨 초기 醫方書의 형태 등 학술적인 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실제 著作에 대한 서지학적 관점도 제시하였는데 『中藏經』의 내용과 문헌상의 연구를 토대로 華佗의 저작물일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고 『中藏經』 등장시기가 宋代의 『通志·藝文略』인 것도 설명하였는데, 華佗가 曹操에게 참살 당한 후에 제자와 지인에 의히 비전되어오다가 宋代에 다시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저작시기에 대해서는 송대이전 六朝시대까지 올라 갈 수 있는 문헌학적 고증이 있다고 보았다. (박현국, 조면휘. 『中藏經』 삼권본의 해제와 해석. 동국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4. 3(1). pp.223-458.)

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熱은 實症을 일으키고 寒은 虛症을 일으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張元素는 『中藏經』을 기반으로 『內經』의 病機19條 火類를 三焦病에 편입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內經』에서 기원한 汗, 小便, 腹滿, 水脹과 같은 津液 중심의 증상에 水穀之道路의 뜻을 대표하는 嘔吐와 泄瀉, 大小便질환이 더해졌는데 張元素는 여기에 火病을 더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醫學啓源』에서는 熱症을 上焦, 中焦, 下焦로 구분하고 각각 대표처방을 통해 치료한 반면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에 이르러서는 上中下焦의 病을 寒熱症으로 정리하고 寒熱症과는 다른 標本症을 따로 정립하였다. 치료법에 있어서도 약초를 상중하 위치에 맞게 배치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해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張元素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三焦辨證을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크게 나누면 『中藏經』과 張元素의 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 편부터는 두 의가들의 내용을 위주로 三焦의 병리를 살펴볼 것이다.

## 1) 『中藏經』

### ① 『中藏經』 개요

中藏經은 三焦를 人의 三元之氣라고 하였다. 이는 天의 三元之氣와 대비되는 말로서 呼吸보다는 水穀을 중심으로 三焦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清之腑. 總領五臟六腑, 榮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也. 三焦通, 則內外左右上下皆通也. 其於周身, 灌體, 和內調外, 榮左養右, 導上宣, 莫大於此者也. 又名玉海. 水道, 上則曰三管, 中則名霍亂, 下則曰走哺, 名雖三而歸一, 有其名而無形者也. 亦號曰孤獨之腑, 而衛出於上, 榮出於中. 上者絡脈之系也, 中者經脈之系也,<sup>167)</sup> 下者水道之系也. 亦又屬膀胱之宗始, 主通

167) 전후 문장을 보면 비급천금요방의 삼초에 대한 문장과 거의 같은 표현이다.



陰陽，調虛實。”<sup>168)</sup>(中藏經)

또한 『中藏經』은 升降出入대신 三焦의 三元之氣가 內外左右上下之氣에 연결된다고 하였고 三焦가 通하면 內外左右上下가 通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周身灌體라고 하여 온몸으로 이어지는 水道를 표현하였는데 和內調外，榮左養右，導上宣下한다고 하여 調和，榮養，導宣을 三焦의 기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上中下焦의 다른 이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sup>169)</sup> 上焦는 三管，中焦는 霍亂，下焦는 走哺라고 지칭하였고 비록 3가지로 나누어지나 하나로 돌아가 有名而無形하다고 하였다. 三焦의 각 부분의 명칭은 霍亂에서 유래된 것으로, 『難經』이 三焦를 決瀆之官과 水道대신에 水穀之道路라고 하여 三焦의 水穀대사 기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中藏經』은 단순히 霍亂으로부터 이름만으로 가져 온 것이 아니라 三焦病 자체를 嘔吐와 泄瀉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難經』의 三焦論을 바탕으로 三焦病의 病機를 제시한 셈인데, 上中下 3가지로 나누고 寒熱의 병리를 제시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三焦病機를 완성하였다. 단점으로 꼽자면 처방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후대의 『刪繁方』이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三焦辨證論治의 틀을 제시하였다.

## ② 『中藏經』의 三焦病證

전체적으로 『內經』과 『難經』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飲食의 소화과정을 중심으로 三焦의 病을 설명하였다. 특히 『難經』에서 上焦가 入而不出，中焦가 不上不下，下焦가 出而不入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이하 인용문은 『中藏經』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中藏經』은 가장 먼저 대표적인 증상을 서술한 뒤에 上焦，中焦，下焦의 순서로 병증을 설명하였다.

168)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69) 『諸病源候論』에 나오는 霍亂의 세 가지 이름을 참고할 수 있다. 『諸病源候論』은 霍亂을 胃反，霍亂，走哺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고 霍亂의 기전에 三焦를 많이 언급하였다. (“霍亂有三名，一名胃反，言其胃氣虛逆，反吐飲食也。二名霍亂，言其病揮霍之間，便致撩亂也。三名走哺，言其哺食變逆者也。”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58.)

“呼吸有病，則苦腹脹氣滿，小腹堅 溺而不得，便而窘迫也。溢則作水，留則爲脹，足太陽是其經也。”<sup>170)</sup>(中藏經)

呼吸에 병이 있는 즉, 脹滿하여 고통스러운데 小腹이 단단해 지면서 소변을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대변이 급박하게 나오려고 하나 보지 못한다. (大小便이 배출되지 못해서) 흘러넘치면 水病이 되고 머무르면 脹滿이 되니 足太陽經의 病이라고 하였는데, 이 病證은 『中藏經』이 三焦病의 기준으로 삼은 病證으로 따로 寒熱의 구분이 없이 가장 먼저 기술하였다. 『中藏經』이 설명하고 있는 病證은 膀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三焦와 膀胱 사이의 문제로 病證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足三焦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上焦實熱，則額汗出，而身無汗，能食，而氣不利，舌幹口焦，咽閉之類，腹脹，時時脅肋痛也。”<sup>171)</sup>(中藏經)

上焦에 實熱이 있어서 津液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이마에만 땀이나고 上焦病이므로 음식물은 삼킬 수는 있으나 氣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上焦의 實熱로 인해 口舌이 마르고 목구멍이 막히며 腹脹滿하고 때때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이는 표6의 上焦 영역<sup>172)</sup>을 참고한다면 心下와 胸部의 증상과 표6의 上焦 영역이 엇비슷하다. 手三焦(上)에 해당하는 衛氣, 少陽相火, 汗이 모두 나타나는 전형적인 上焦熱證이라고 할 수 있다.

170)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71)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72) 『靈樞·營衛生會』“上焦出於胃上口，並咽以上，貫膈而布胸中”(王冰 註解. 四部備要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106.), 『難經·31難』“上焦者，在心下，下膈，在胃上口”(金鏡수, 송지청 역. 國譯 難經. 파주. 집문당. 2015. p.162.)

	『靈樞·營衛生會』	『難經·31難』 생리 기준	『難經·31難』 병리 및 치료 기준
上焦	上焦出於胃上口，並咽以上， 貫膈而布胸中	上焦者，在心下， 下膈，在胃上口	其治在膻中
中焦	中焦亦並胃中，出上焦之後	在胃中脘	其治在臍傍
下焦	別迴腸，注於膀胱	當膀胱上口	其治在臍下一寸

<표8> 『靈樞·營衛生會』와 『難經·31難』의 三焦 영역 비교

“寒則不入食，吐酸水，胸背引痛，噎乾，津不納也。實則食已還出，膨膨然不樂。虛則不能制下，遺便溺而頭面腫也。”<sup>173)</sup>(中藏經)

寒證에 대해서는 上焦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상 上焦의 寒證으로 파악하였다. 해석해보면 寒한 즉 먹지 못하고 酸水を 구토하고 가슴과 배가 당기면서 아프고 목구멍이 마르고 津이 수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上焦水病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實하면 먹고 나서 바로 토하고 속이 팽팽한 듯 괴롭고 虛하면 설사가 그치지 않고 대소변이 저절로 흐르고 頭面이 붓는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上焦의 元氣不足으로 인한 寒證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中焦實熱，則上下不通，腹脹而喘咳，下氣不上，上氣不下，關格而不通也。”<sup>174)</sup>  
(中藏經)

『難經』에서 中焦는 不上不下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응용하였다. 中焦 實熱한 즉, 上下가 不通하고 腹脹, 喘咳하며 下氣가 올라가지 못하고 上氣이 내려오지 못하니 關格이 되어 소통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喘咳는 上焦, 腹脹은 中焦의 병으로 中焦 實熱이지만 上焦까지 전변된 것으로 보인다. 『內經』에서는 關格을 陰陽俱盛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았는데 氣分뿐만 아니라 血分까지 얽혀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中焦營氣의 이상이 少陽相火와 血의 이상을 일으키고 上焦 衛氣까지 전변된 것으로 볼

173)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74)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수 있다.

“寒則下痢不止，食飲不消，而中滿也。虛則腸鳴鼓脹也。”<sup>175)</sup>(中藏經)

中焦가 차가워지면 설사가 그치지 않고 음식을 소화되지 않고 中滿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腸胃의 문제에서 시작된 中下焦의 문제로 보인다. 寒證은 元氣가 쇠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元氣가 쇠약하면 虛證으로 빠지기 쉽고 虛해지면 腸鳴鼓脹한다고 하였다. 腸鳴鼓脹은 일종의 水氣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元氣가 쇠약하여 津液을 움직이지 못해 발생한 일종의 水病이라고 할 수 있다.

“下焦實熱，則小便不通，而大便難苦重痛也。虛寒則大小便泄，下而不止，三焦之氣和則內外和，逆則內外逆。故云三焦者人之三元之氣也。宜修養矣。”<sup>176)</sup>(中藏經)

下焦는 大腸과 膀胱 사이에서 泌別清濁을 하므로 下焦의 병은 주로 大小便의 이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下焦實熱하면 小便이 不通하고 大便을 보기 어려우면서 뒤가 무겁고 아프다고 하였고, 虛寒하면 大小便을 보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中藏經』은 下焦의 병을 虛寒證과 實熱症으로 단순하게 파악하였고 전자는 元氣의 부족, 후자는 少陽相火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

175)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176)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p.36.

	實熱	虛寒
上焦	額汗出，而身無汗，能食， 而氣不利，舌幹口焦，咽閉之類， 腹脹，時時脅肋痛	不入食，吐酸水，胸背引痛， 噎乾，津不納也。實則食已還出， 膨膨然不樂。虛則不能制下， 遺便溺而頭面腫
中焦	上下不通，腹脹而喘咳， 下氣不上，上氣不下，關格而不通	下痢不止，食飲不消，而中滿也。 虛則腸鳴鼓脹
下焦	小便不通，而大便難苦重痛	大小便泄，下而不止

<표9> 『中藏經』의 三焦 寒熱虛實 辨證

종합해보면 『中藏經』에서 말하는 熱證은 주로 實熱을 의미하고 寒證은 주로 虛寒을 의미한다. 虛寒證의 경우 寒證이 먼저 발생하고 虛證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上焦病은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며 手少陽經의 영역과 유사한 면이 있다. 中焦病은 熱證인 경우는 上中焦, 寒證인 경우는 中下焦 위주로 되어있으며, 下焦는 주로 大小便의 이상을 주요 病證으로 보았다. 대체적으로 實熱證은 不通, 虛寒은 下而不止의 病機를 가지는데, 이는 『靈樞·刺節眞邪』에서 “陽勝者，則爲熱，陰勝者，則爲寒，寒則眞氣去，去則虛，虛則寒.”라고 한 것과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陽勝하면 몸이 열이 나면서 腠理가 닫히고, 陰勝하면 몸이 차면서 땀이 난다고 한 것<sup>177)</sup>을 응용하였다고 보인다. 즉, 熱症은 陽勝하여 발생한 것으로 不通의 病機를 가져 實證이 되고 虛症은 陰勝하여 발생한 것으로 不禁의 病機를 가져 虛證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때 實證을 유발하는 陽勝은 少陽相火의 영향을 받으며 虛證을 유발하는 陰勝은 元氣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中藏經』은 증상 면에서 주로 水穀의 消化 과정과 糟粕의 下降 및 逆上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三焦의 ‘焦’와 관련이 있으며 水穀의 津液을 흡수하지 못하는 질환을 三焦病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三焦 중 中焦가 이러한 기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中藏經』은 『內經』에서 주로 下焦의 津液病을 논한 것에

177) 『素問·陰陽應象大論』 “陽勝則身熱，腠理閉，喘麤爲之俛仰，汗不出而熱，齒乾以煩寃腹滿，死，能冬不能夏。陰勝則身寒汗出，身常清，數慄而寒，寒則厥，厥則腹滿，死，能夏不能冬。此陰陽更勝之變，病之形能也。”(王冰 註解. 四部備要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p.67.)

비하여 中焦의 水穀津液病 위주로 三焦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 2) 『外臺秘要』 및 『刪繁方』, 『備急千金要方』,

세 가지의 서적은 『中藏經』을 필두로 『刪繁方』,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의 순으로 이어졌다. 세 가지 서적 모두 내용이나 구성이 비슷한데 『中藏經』의 辨證을 기반으로 三焦에 대한 辨證과 治法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中藏經』은 주로 病證을 구분하려고 하였는데 治法은 소개하지 않았다. 후대의 『刪繁方』은 三焦의 病證을 더 확대하면서도 治法도 추가하였다.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은 『刪繁方』의 설명을 비교적 온전히 인용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대동소이한 세 가지 서적 중 제일 마지막 시기에 편찬된 『外臺秘要』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① 上焦病證

#### ㉠ 上焦의 熱證

上焦의 熱症으로는 『靈樞·營衛生會』에서 漏泄을 인용하였다.

“人有熱則飲食下胃，其氣未定，汗則出，或出於面，或出於背，或出於身手，皆不循衛氣之道而出，蓋外傷於風內開腠理，毛蒸理泄，衛氣走之，故不得循其道，此氣剽悍滑疾，見開而出，故不得其道，名曰，漏泄。”<sup>178)179)</sup>(外臺秘要)

178)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3.

179) 『刪繁方』에서 유래한 내용이다.

『外臺秘要』	『中藏經』
人有熱則飲食下胃，其氣未定， 汗則出，或出於面，或出於背， 或出於身手 <sup>180)</sup>	額汗出，而身無汗，能食， 而氣不利，舌幹口焦，咽閉之類， 腹脹，時時脅肋痛

<표10> 『中藏經』과 『外臺秘要』의 증상 비교

『外臺秘要』는 上焦의 熱症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熱이 있으면 음식이 胃로 내려가지만 그 氣(穀氣)가 (胃에) 가만히 고정되지 않고 땀이 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衛氣가 흐르는 길이 아닌 얼굴이나 등, 손 등과 같은 국소 부위에 땀이 난다고 하였다. 이는 風邪에 의한 外傷으로 발생한 증으로 안으로는 腠理가 열리게 되는데, (衛氣로 인해서) 毛髮은 蒸하고 腠理는 泄하여 衛氣가 원래 가야할 길로 가지 않고 腠理가 열린 곳으로 배출되어 땀이 난다고 하였다. 이는 上焦 實熱證을 『靈樞·營衛生會』의 漏泄症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처방은 澤瀉湯<sup>181)</sup>을 제시하였다. 漏泄證은 『中藏經』의 上焦病과 유사한데, 手三焦에 해당하는 점과, 衛氣의 문제로 발생한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은 『外臺秘要』의 내용에는 舌幹口焦, 脅肋痛과 같은 手少陽經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이다.

### ㉠ 上焦의 寒證

上焦의 寒證은 『外臺秘要』에서 추가된 부분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其病則肘掌痛，食先吐而後下，氣不續胸膈間厭悶，所以飲食先吐而後下也，寒則精神不守，泄下便利，語聲不出.”<sup>182)</sup>(外臺秘要)

180) 『外臺秘要』에서 『刪繁方』을 인용한 부분이다.

181) “澤瀉(二兩), 生地骨皮(五兩), 甘草(一兩炙), 半夏(二兩洗), 石膏(八兩), 柴胡(三兩), 茯苓(三兩), 生薑(三兩), 竹葉(切五合), 人參(二兩), 桂心(一兩), 心(一升), 上十二味切, 以水一斗, 煮取三升, 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4.)

(三焦가) 病이 들면 팔꿈치와 손바닥이 아프고 식사를 하면 먼저 토하고 뒤에泄瀉를 하며 호흡이 이어지지 않고 胸膈 사이에 한 번씩 가위 눌리듯이 답답하다고 하였다. 이후 병이 더 진행되어 上焦 寒證이 되면 정신을 지킬 수 없고 대소변이 그치지 않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 증상에 대해서는 半夏理中續膈破寒湯<sup>183)</sup>을 제시하였다. 上焦病의 病證을 분석해보면 肘掌痛은 手少陰心經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食先吐而後下는 中焦의 소화과정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上焦와 下焦에 전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호흡이 이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胸膈의 증상은 肺와 관련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上焦의 寒症를 中焦의 소화기능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虛症과 實症은 心肺의 병으로 연결하였다.

### ㊸ 上焦의 虛實證

“若實則上絕於心若，虛則引氣於肺.”<sup>184)</sup>(外臺秘要)

實證이 되면 위로 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고 虛하면 肺로 氣를 당기는 것 같다고 하였다. 實證은 上焦의 熱證으로 보고 大棗湯<sup>185)</sup>을 제시하였고 虛證은 上焦의 虛寒으로 보고 半夏瀉心湯<sup>186)</sup>을 제시하였다. 上焦를 心肺의 병과 연결한 셈인데, 陽臟인 心의 病은 열이 나므로 實證이고 陰臟인 肺의 病은 虛寒證인 것으로 보았다.<sup>187)</sup> 『中藏經』과는 다르게 寒症이라고 하여도 元氣로 설명하기보다는 三焦五臟配

182) 『千金方』과 같은 내용이다.

183) “半夏(半升制), 生薑(四兩), 麻黃(三兩去節), 前胡(三兩), 澤瀉(三兩), 竹葉(一升), 細辛(三兩), 枳實(三兩炙), 杏仁(三兩去皮尖), 上九味切, 以水九升, 煮取三升, 去滓, 分三服.”(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4.)

184) 『千金方』과 같은 내용이다.

185) “大棗(三十枚), 杏仁(三兩去皮尖), 人參(三兩), 紫菀(二兩), 葶藶(三兩), 麥門冬(三兩去心), 百部(三兩), 通草(三兩), 石膏(八兩), 五味子(一兩), 羊腎(三枚去膏), 麻黃(三兩去節,) 上十二味切, 以水一斗, 煮取二升五合, 去滓, 下蜜三合, 生薑汁三合, 淡竹瀝三合, 更上火煎取三升, 分三服.”(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4.)

186) “半夏(五兩洗), 黃芩(三兩), 甘草(三兩炙), 人參(三兩), 幹薑(三兩), 黃連(一兩), 桂心(三兩), 上七味, 以水九升, 煮取三升, 去滓, 分三服.”(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4.)

187) 『外臺秘要』에서 『刪繁方』을 인용한 부분이다. 『刪繁方』은 上焦가 心肺의 病을 주관한다고 주장하



屬을 응용하여 설명한 점이 특색이다.

	『中藏經』	『外臺秘要』
實熱	額汗出，而身無汗，能食，而氣不利， 舌幹口焦，咽閉之類，腹脹， 時時脅肋痛	人有熱則飲食下胃，其氣未定， 汗則出，或出於面，或出於背， 或出於身手
虛寒	不入食，吐酸水，胸背引痛，噎乾， 津不納也。實則食已還出， 膨膨然不樂。虛則不能制下， 遺便溺而頭面腫	肘掌痛，食先吐而後下， 氣不續胸膈間厭悶， 所以飲食先吐而後下也， 寒則精神不守，泄下便利，語聲不出， 若實則上絕於心若，虛則引氣於肺。

<표11> 上焦病의 寒熱虛實

## ② 中焦病證

中焦의 병은 上焦만큼 자세하지 않고 주로 虛實로 구분하였다.

“中焦實熱閉塞，上下不通，隔絕關格，不吐不下，腹滿彭彭，喘急，大黃瀉熱，開關格通隔絕湯方.”<sup>188)</sup>(外臺秘要)

“四肢不可舉動，多汗洞痢方。灸大橫隨年壯，大橫俠臍，旁行相去兩邊，各兩寸五分.”<sup>189)</sup>(外臺秘要)

中焦의 實熱證에 대해서는 『中藏經』이 ‘腹脹而喘咳’라고 간략히 설명한 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中焦의 實熱로 인해 閉塞되고 上下가 不通하여 關格이 되면 吐하지도 못하고 下하지도 못하여 腹部가 그득하면서 팽팽하고 喘急한다고 하였다. 이

였는데 『難經』에서 유래한 三焦와 五臟배속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88)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5.

189)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5.

때는 大黃으로 瀉熱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開關格通隔絕湯方<sup>190)</sup>을 제시하였다.

虛寒證으로는 四肢를 움직이지 못하고 땀이 많이 나며 설사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처방을 제시하지 않고 大橫穴에 나이만큼 施灸하라고 하였다. 이는 『難經』이 中焦病에 ‘其治在臍傍’이라고 한 것을 응용한 것이다.<sup>191)</sup> 이상의 증상들은 實熱不通, 虛寒不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虛寒證의 경우 땀을 띠서 元陽을 보충하였다.

	『中藏經』	『外臺秘要』
實熱	上下不通, 腹脹而喘咳, 下氣不上, 上氣不下, 關格而不通.	上下不通, 隔絕關格, 不吐不下, 腹滿彭彭, 喘急, 大黃瀉熱, 開關格通隔絕湯方.
虛寒	下痢不止, 食飲不消, 而中滿也. 虛則腸鳴鼓脹.	四肢不可舉動, 多汗洞痢方. 灸大橫隨年壯大橫俠臍旁行相去兩邊 各兩寸五分.

<표12> 中焦病의 寒熱虛實

### ③ 下焦病證

下焦病의 경우 주로 虛實을 중심으로 병증을 구분하였다. 下焦病은 『外臺秘要』의 三焦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부분으로, 下焦病에 대해서 주로 霍亂과 痢疾에 의한 嘔吐와 大小便의 이상을 주요 증상으로 설명하였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若實則大小便不通利, 氣逆不續, 吐嘔不禁, 故曰走哺.”<sup>192)</sup>(外臺秘要)

“下焦熱, 大小便俱不通, 柴胡通塞湯方.”<sup>193)</sup>(外臺秘要)

190) “大黃(三兩切別漬), 黃芩(三兩), 澤瀉(三兩), 升麻(三兩), 羚羊角(四兩), 梔子仁(四兩), 生地黄汁(一升), 玄參(八兩), 芒硝(三兩), 上九味切, 以水七升, 先煮七味, 取二升三合, 下大黃更煎數沸, 絞去滓, 下消, 分三服.”(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5.)

191) 關格은 『中藏經』편에서 기술하였다.

192) 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105-106.

193) 王燾撰. 高文鑄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千金療下焦熱，或痢下膿血，煩悶恍惚，赤石脂湯方.”<sup>194</sup>(外臺秘要)

“若虛，則大小便不止，津液氣絕.”<sup>195</sup>(外臺秘要)

“又療下焦虛寒，津液不止，氣欲絕，人參續氣湯方.”<sup>196</sup>(外臺秘要)

“所以熱則瀉於肝，寒則補於腎.”<sup>197</sup>(外臺秘要)

下焦實證의 경우 大小便이 不通하고 氣가 逆上하여 이어지지 않고 嘔吐를 멈출수가 없는데 이를 走哺라고 한다고 하였다. 처방으로 止嘔人參湯方<sup>198</sup>을 제시하였다. 下焦의 熱證에 대소변이 막히는 증상만 있을 때는 柴胡通塞湯方<sup>199</sup>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下焦의 熱證이 심해져 痢下膿血하고 煩悶恍惚할 때는 赤石脂湯方<sup>200</sup>을 제시하였다.

虛證에는 大小便이 그치지 않고 津液과 氣가 끊어진다고 하였는데 大小便이 그치지 않는 증상에는 柏皮湯止痢方<sup>201</sup>을 제시하였다. 虛證이 심해져서 虛寒證이 되어 津液이 그치지 않고 氣가 끊어질 것 같을 때는 人參續氣湯方<sup>202</sup>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病證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熱證은 實熱로 인식하여 大小便不通이 기본 증상인 것은 같으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병이 깊어지면 嘔吐나 痢疾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虛證도 마찬가지로 大小便의 不禁을 기본으로 津液氣絶과 같은 합병증

194)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195)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196)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197)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198) “人參，生蘆根，梔子，仁薮蕤，黃芩，知母，茯苓(各三兩)，白朮(四兩)，石膏(八兩)，上十味切，以水九，煮取三升，去滓，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199) “柴胡(三兩)，黃芩(三兩)，橘皮(三兩)，澤瀉(三兩)，梔子仁(四兩)，石膏(六兩)，羚羊角(三兩炙)，生地黃(一升)，芒硝(三兩)，香豉(一升)，上十味切，以水一斗，煮九味，取三升，去滓，下芒，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200) “赤石脂(八兩)，烏梅肉(二十枚)，梔子仁(十四枚)，白朮(三兩)，幹薑(二兩)，廩米(一升)，升麻(三兩)，上七味切，以水一斗，煮米取熟，去米取七升，下諸藥，煮取二升五合，去滓，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201) “黃柏(三兩)，黃連(五兩)，人參(三兩)，茯苓(四兩)，濃樸(四兩炙)，艾葉(一升)，地榆(三兩炙)，檳皮(四兩炙)，阿膠(三兩)，上九味切，以水一斗，煮取三升，去滓，下膠，煎取二升，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202) “人參橘皮(去赤脈)，茯苓，烏梅皮，麥門冬(去心)，黃芩，乾薑(各三兩)，白朮(四兩)，濃樸(四兩炙)，桂心(二兩)，吳茱萸(三合)，上十二味切，以水一斗二升，煮取三升，去滓，分三服.”(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6.)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질병의 진단에 있어 寒熱虛實뿐만 아니라 表裏나 傳變을 고려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熱證이 구토나 이질이 되는 것은 少陽相火의 문제로 볼 수 있고 寒證이 氣欲絶과 같은 증상이 되는 것은 元氣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三焦와 五臟에 관련하여 熱證에 瀉肝하고 寒證에 補腎하는 治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上焦의 心肺와 마찬가지로 陽臟은 熱證에 배속하였고 陰臟은 寒證에 배속한 것이다.

	『中藏經』	『外臺秘要』
實熱	小便不通，而大便難苦重痛	大小便俱不通，柴胡通塞湯方 熱則瀉於肝
虛寒	大小便泄，下而不止	若虛，則大小便不止，津液氣絕 寒則補於腎

<표13> 下焦病의 寒熱虛實

#### ④ 手三焦의 病證

“三焦脹者，氣滿在皮膚，殼殼然而不堅。手少陽之脈，是動則病耳聾，噎腫，喉痺。是主氣所生病者，汗出，目銳痛，頰痛，耳後肩肘臂外皆痛，小指次指不用爲此諸病。寒則留之，熱則疾之，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盛者，人迎一倍於寸口。虛者，人迎反小於寸口。”<sup>203)</sup>(外臺秘要)

『靈樞·脹論』에 나오는 三焦脹을 인용하고 이를 手少陽經의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파악하였다. 三焦脹은 피부가 氣로 가득 차 그득하지만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手三焦의 少陽相火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殼殼然은 피부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문의를 따졌을 때 피부가 약간 붓고 두꺼워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3)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103-104.

### ⑤ 足三焦의 病證

“『千金論』曰，三焦病者腹脹氣滿，少腹尤堅，不得小便窘急，溢則爲水，留則爲脹，候在足太陽之外，大絡在太陽少陽之間，亦見於脈，取委陽少腹病腫痛，不得小便，邪在三焦，約取太陽大絡，視其結脈，與厥陰小絡結而血者。”<sup>204)</sup>(外臺秘要)

『中藏經』에서 呼吸과 관련된 病證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를 『千金方』이 분석하고 治法을 제시하였다. 『千金方』은 足太陽과 足厥陰의 병으로 파악하였으며 結脈<sup>205)</sup>을 찾아 瀉血하라고 하였다. ‘太陽少陽之間’이나 ‘委陽’ 같은 표현을 볼 때 足三焦(太陽之別)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中藏經』	『外臺秘要』
手三焦	無	三焦脹者，氣滿在皮膚，殼殼然而不堅 是動則病耳聾，噎腫，喉痹 所生病者，汗出，目銳痛，頰痛，耳後肩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爲此諸病.
		手少陽三焦經의 是動病과 所生病 / 少陽相火
足三焦	呼吸有病， 則苦腹脹氣滿，小腹堅 溺而不得，便而窘迫也。 溢則作水，留則爲脹， 足太陽是其經也。	腹脹氣滿，少腹尤堅，不得小便窘急，溢則爲水，留 則爲脹，候在足太陽之外，大絡在太陽少陽之間，亦 見於脈，取委陽少腹病腫痛，不得小便，邪在三焦， 約取太陽大絡，視其結脈，與厥陰小絡結而血者
	足太陽의 經病	足三焦(委陽)의 병과 足厥陰의 병으로 보았다.

<표 14> 『中藏經』과 『外臺秘要』의 手三焦, 足三焦

204) 王燾 撰. 高文鑄 校註.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3.

205) 結脈은 곧 絡脈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脈을 의미한다.

### 3) 張元素

#### ① 『醫學啓源』

『醫學啓源』의 三焦論은 『中藏經』을 기반으로 『主治備要』에서 是動病 및 所生病 부분을 인용하고 『脈訣』에서 脈法을 가져와서 완성되었다.

張元素가 선대의 三焦論에 추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少陽相火 개념으로 張元素는 『醫學啓源』에서 三焦, 手少陽을 父氣로 정의하고 心包絡, 手厥陰을 母血라고 정의하여 三焦와 心包絡이 부부관계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火者, 少陽相火之熱, 乃心包絡, 三焦之氣也.”라고 하여 少陽相火를 三焦와 心包絡의 주요 病因으로 삼기도 하였다. 少陽相火로 인한 증상은 『內經』의 病機19條를 가져와 火病이 三焦의 病이라고 보았다. 張元素가 정리한 火病을 살펴보면 三焦의 병증에 관한 것도 있지만 心包의 병증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다. 張元素는 이러한 제반 증상을 火病, 즉 相火로 인한 증상으로 파악하였다.<sup>206)</sup> 그런데 처방은 증상별로 하나하나 제시하지 않고 病所를 上中下로 구역을 나누어 기존에 쓰이던 처방을 각 구역에 맞게 배치하여, 일종의 通治方 개념으로 접근하였다.<sup>207)</sup> 이것이 張元素가 두 번째로 추가한 부분으로 張元素는 三焦病의 범위를 『內經』의 病機19條 火病을 통해 확장하였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치료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후대의 의가들 또한 張元素가 천거한 처방을 근거로 上中下로 나누어 치료하게 되었고 『刪繁方』의 처방은 잊혀져 갔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13은 張元素의 『醫學啓源』과 張元素의 제자인 王好古의 『醫壘元戎』<sup>208)</sup>의 처방배열을 비교한 것이다. 『醫壘元戎』에는 『醫學啓源』에 三焦寒證을 추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처방을 보충하였다.

206) “諸熱瘡, 暴暗冒昧, 躁擾狂越, 罵詈驚駭, 腫疼酸, 氣逆沖上, 禁栗如喪神守, 噎嘔, 瘡瘍喉痹, 耳鳴或聾, 嘔湧溢, 食不下, 目昧不明, 暴注, 暴病卒死, 是皆屬於火.”(張元素 原著, 金容辰, 趙學俊 編譯. 醫學啓源. 대전. 2003. p.88.)

207) 『醫學啓源』에는 『刪繁方』의 처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208)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醫壘元戎).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727.

	『醫學啓源』三焦熱	『醫壘元戎』三焦熱	『醫壘元戎』三焦寒
上焦	涼膈散, 瀉心湯	清神散, 連翹防風湯, 涼膈散, 龍腦飲子, 犀角地黄湯	桂附丸, 鐵刷湯, 胡椒理中湯
中焦	調胃承氣湯, 瀉脾散	小承氣湯, 調胃承氣湯, 洗心散, 四順清涼飲, 桃仁承氣湯	二氣湯, 附子理中丸, 大建中湯
下焦	大承氣湯, 三才封髓丹	大承氣湯, 五苓散, 立效散, 八正散, 石葦散, 四物湯, 抵當湯丸	還少丹, 八味丸, 天真丹
氣分熱 (三焦經)	柴胡飲子, 白虎湯	此例, 有輕重氣血之分, 用者, 當擇其可焉而已矣.	
血分熱 (心包經)	桃仁承氣湯, 清涼飲子		
通治其 熱之氣	三黃丸, 黃連解毒湯	無	

<표15> 『醫學啓源』와 『醫壘元戎』의 三焦辨證

이상의 처방들은 三焦 하나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病證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들이다. 예를 들면 調胃承氣湯은 ‘火門’에 있을 뿐만 아니라 ‘解利外感門’, ‘屈伸不便, 厥逆禁固門’에 나오는데 調胃承氣湯은 中焦에만 쓰는 약은 아닌 것이다. 이는 張元素는 三焦病이라고 하여서 『中藏經』과 같이 三焦 고유의 질병만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三焦의 개념을 확장해 공간 개념까지 三焦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영역의 병인지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기에, 이를 三焦로 해석하여 처방을 三焦에 맞게 나누어 배치하였다.

## ②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

張元素의 『醫學啓源』이 『中藏經』의 설을 이어받고 三焦의 相火로 인한 火病을 추가하였다면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sup>209)</sup>은 『中藏經』의 설을 완전히 해체하여 다시 조립함으로써 張元素 자신의 三焦辨證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三焦爲相火之用，分布命門元氣，主升降出入，遊行天地之間，總領五臟六腑營衛經絡內外上下左右之氣，號中清之府。上主納，中主化，下主出。”<sup>210)</sup>(用藥式)

우선 기존의 三焦少陽相火를 기반으로 三焦가 命門元氣를 分布하고 升降出入을 주관한다고 정의하였다. 『中藏經』에서 三焦가 五臟六腑營衛經絡에 이어져 內外上下左右를 소통시킨다는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出入升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또한 三焦의 기능을 ‘上主納，中主化，下主出’로 요약하였는데 『難經』과 같은 의견으로 水穀의 運行을 三焦 기능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張元素의 三焦辨證은 기본적으로 『中藏經』과 『內經』의 病機19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三焦의 病을 病機19條 火病을 기반으로 本病과 標病으로 나누었는데 上中下의 영역 구분이 가능한 증상은 上中下로 나누고 다시 熱症과 寒症으로 나누었다. 기존의 『醫學啓源』에서는 병인과 처방만 존재하던 것을 병인과 증상 및 치법을 제시함으로써 三焦辨證을 완성한 것이다.

209) 이하부터는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을 『用藥式』으로 표기한다.

210) 김은하, 변성희 공저.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釋. 서울. 일증사. 2001. p.215.



實火瀉之	汗 (麻黃, 柴胡, 葛根, 荊芥, 升麻, 薄荷, 羌活, 石膏)
	吐 (瓜蒂, 滄鹽, 齋汁)
	下 (大黃, 芒硝)
虛火補之	上 (人蔘, 天雄, 桂心)
	中 (人蔘, 黃, 丁香, 木香, 草果)
	下 (附子, 桂心, 硫黃, 人蔘, 沉香, 烏藥, 破故紙)
本熱寒之	上 (黃芩, 連翹, 梔子, 知母, 玄蔘, 石膏, 生地黃)
	中 (黃連, 連翹, 生地, 石膏)
	下 (黃柏, 知母, 生地, 石膏, 牡丹, 地骨皮)
標熱散之	解表 (柴胡, 細辛, 荊芥, 羌活, 葛根, 石膏)

<丑16>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의 三焦病 治法

	『中藏經』	火熱症 / 寒症
本病	無	諸熱發熱(火), 暴病暴死暴暗(火), 躁擾狂越(火), 譫妄驚駭(火), 諸血溢血泄, 諸氣逆冲上(火), 諸瘡瘍(火), 痘疹瘤核(熱)
標病	無	惡寒戰栗如喪神守(火), 耳鳴耳聾(火), 噎腫喉痹(火), 諸病腫不用.
上熱	頭上出汗, 食飲不消, 胸痞脅痛	喘滿, 諸嘔吐酸(熱)
中熱	上下關格不通	善饑而瘦, 解中滿, 諸脹腹大(熱), 諸病有聲, 鼓之如鼓(熱), 霍亂吐利(熱)
下熱	小便淋瀝或不通, 大便閉結下痢	暴注下迫(火熱), 水液混濁(熱), 下部腫滿(熱)
上寒	吐飲食痰水 胸痺前後引痛 食已還出(實)	無
中寒	飲食不化 寒脹 反胃吐水,	濕瀉不渴(寒)
下寒	二便不禁	臍腹冷, 疝痛(寒)

<丑17>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의 三焦辨證

<표16>은 張元素가 三焦의 病證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보여준다. <표16>에서 『中藏經』이라는 항목은 張元素가 『中藏經』에서 인용한 증상으로 실제 『中藏經』에 실려있는 것보다 많이 간소해졌다. 우측 항목은 病機19條를 참고하여 張元素가 정리한 火病들이다. 이를 三焦라는 도구를 통해 上中下焦와 標本으로 나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中藏經』의 寒證과 熱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17>에 정리한 治法에 있어서는 實火는 汗吐下 3법을 통해 瀉法을 사용하였고 虛火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溫補法을 사용하였다. 이는 李東垣이 말한 元氣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陰火病으로 李東垣의 치법이 張元素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

本熱證에는 寒法을 사용하였고 標熱에는 發散法을 사용하였는데 火가 아닌 熱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三焦의 少陽相火로 인한 火病을 熱症과 구분하였다. 本熱證에 일반적인 清熱藥을 배치하여 氣의 熱症을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實火證에는 津液의 소통을 중요하게 보고 汗吐下의 治法을 사용하여 정체된 津液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標熱은 發散을 위한 약물을 사용하였는데 上焦 實火에서 薄荷, 升麻, 麻黃이 빠지고 細辛이 추가 되었다.

張元素의 說에서 중요한 점은 三焦가 少陽相火之用이되어 命門의 元氣를 분포한다고 한 점이다. 張元素는 相火의 이상은 命門으로부터 발원한 元氣의 이상으로 해석하여 虛火補之라는 치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후대의 命門相火說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며 溫補波의 시초가 張元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본 논고에 맞추어 분석해 보자면 張元素는 手三焦의 少陽相火를 중심으로 元氣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足三焦의 元氣不足은 虛寒을 일으키지만 手三焦의 少陽相火는 그 자체로 熱症이 될 수도 있으면서 元氣를 소모시키고 津液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의학들이 足三焦의 元氣不足을 주요 병기로 연구하여 元氣의 不足을 寒症 위주로 인식하던 것에, 手三焦의 少陽相火와 命門元氣 개념을 활용하여 元氣의 부족으로 熱證도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 4) 『溫病條辨』

앞서 『內經』과 『難經』을 기반으로 寒熱虛實 위주의 三焦病證체계를 살펴보았다면, 『溫病條辨』은 三焦相火論을 중심으로 변증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溫病條辨』의 체계가 전대와 많이 다르다고 하나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에 『溫病條辨』을 살펴보고 『內經』과 『難經』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三焦說을 통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吳鞠通은 三焦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衛氣營血辨證과 五臟辨證, 三陰三陽의 六經辨證을 모두 고려한 아주 복잡한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김상현은 王孟英의 『溫熱經緯』에서 濕을 끼는 溫病의 경우에는 반드시 上焦에서 溫病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溫病縱橫』에서 衛氣營血辨證을 삽입하여 오히려 요점이 불분명하다고 한 점을 거론하였다.<sup>211)</sup> 그러나 이들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三焦의 몇 가지 특성과 『溫病條辨』의 이론을 접목하여 『溫病條辨』이 설명한 바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 ① 三焦와 五臟배속

三焦의 五臟배속은 『難經』에서 시작하여 『刪繁方』에서 확정되고 『千金方』이후 대중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溫病이 전통적인 外邪와 달리 口鼻로 침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口로 들어오는 것은 胃를 거치므로 脾胃가 일차 침입 경로가 되고 鼻로 들어오는 것은 肺를 거치므로 心肺가 일차 침입 경로가 된다. 두 가지 경로를 모두 三焦로 直入하는 것이 아니고 臟腑를 거쳐서 들어오기에 吳鞠通의 三焦辨證은 五臟辨證 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溫病由口鼻而入，鼻氣通於肺，口氣通於胃。肺病逆傳則爲心包，上焦病不治，則傳中焦，胃與脾也。中焦病不治，即傳下焦，肝與腎也。終上焦，始下焦，溫病以手

211) 김상현. 백유상. 정창현. 장우창.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1. 24(2). p.1.

經爲主, 未始不關足經也. 但初受之時, 斷不可以辛溫發其陽耳.”<sup>212)</sup>(溫病條辨)

吳鞠通은 溫病이 口鼻로 들어올 때 鼻氣는 肺로 통하고 口氣는 胃를 통해서 들어 온다고 보았다.<sup>213)</sup> 이후 肺가 病들고 肺病이 逆傳하면 心包의 병이 되고 上焦病이 된다. 이후 上焦病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中焦와 脾胃로 전하고 中焦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下焦와 肝腎으로 전한다고 하였다. 이어 上焦에서 끝나고 下焦에서 시작하니 溫病은 手經(手少陽三焦經)을 주로 삼으나 足經(三陰經)과 관여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溫病이 처음 발병했을 때 辛溫한 약으로 그 陽을 發散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終上焦, 始下焦’같은 표현은 언뜻 上焦에서 下焦로 전변되는 과정과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뒷 문장에서 手經을 手少陽經의 手三焦로 보고, 足經을 足太陽의 足三焦로 본다면 그 의미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溫病이 외감이기는 하나 下焦에서 발원한 元氣를 근본으로 시작하여 上焦의 少陽相火의 병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下焦元氣는 진액과도 밀접해서 溫病이 진액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 下焦元氣를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辛溫한 양으로 其陽을 너무 발산하지 말라고 한 뜻도 元陽之氣를 의미하며 이는 곧 津液의 손상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三焦와 12經絡의 關係

吳鞠通은 口鼻로 말미암아 肺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병변이 일어나는 곳을 꼭 肺胃나 五臟이 있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臟腑를 기술할 때도 직접 기술하지 않고 太陰溫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三陰三陽의 六經辨證처럼 溫病을 구분하

212) 李順保 編. 溫病學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41.

213) 이상의 문장을 보면 吳鞠通은 입에서 胃를 통한 침입을 설명하면서도 肺에서 시작하는 것만 기술한 것은 인체의 後天之氣의 경로는 胃에서 肺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營衛를 따라 사기의 침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이 편에서는 五臟에 집중하려고 한다.

기도 하였다. 이는 臟腑로 기술할 시 溫病의 병위가 臟腑의 위치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六經辨證의 용어를 사용하여 증상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이는 三焦가 12經絡과도 이어지며 三陰三陽에 의한 傳變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治法에도 영향을 주어 증상을 변증하고 처방을 구성할 때 五臟 위주의 後世方보다는 『傷寒論』식 六經辨證을 기준으로 처방을 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sup>214)</sup>

### ③ 三焦와 衛氣營血

吳鞠通은 劉河間의 三焦論을 참고하였다. 溫病의 傳變과정 또한 河間의 설을 따른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溫病由口鼻而入，自上而下，鼻通於肺，始手太陰。太陰，金也，溫者，火之氣，風者，火之母，火未有不克金者，故病始於此，必從河間三焦定論。”<sup>215)</sup>(溫病條辨)

吳鞠通은 溫病이 口鼻로 들어와서 위로부터 아래로 전변되는 것으로 보았다. 鼻는 肺로 통하여 手太陰에서 시작하는데 太陰은 金이고 溫은 火의 氣이고, 風은 火의 母이니 火에는 金을 克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溫病은 肺에서 시작하는데 河間의 三焦定論을 반드시 따른다고 하였다. 이에 口로부터 胃로 들어오는 溫邪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濕病은 脾胃를 발원처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나 溫病계열이 胃로 들어오는 경우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가장 보편적인 설명이라면 『內經』이 밝힌 水穀의 소화흡수과정은 항상 胃에서 肺를 향하는데 이 경로를 溫邪가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다. 출입처는 胃이지만 胸部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營衛의 생성과정과도 밀접하여 衛氣營血辨證이 피부나 폐를 통해 外表에서 內部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214) 吳鞠通은 『靈樞』, 『素問』, 『神農本草經』, 『難經』, 『傷寒論』, 『金匱玉函經』을 醫門之經으로 꼽았다.(李順保 編. 溫病學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11.)

215) 李順保 編. 溫病學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4.

뿐만 아니라 위에서 생성되는 營衛의 생성 경로 또한 溫邪의 침범경로라고 볼 수 있다. 吳鞠通은 이를 陽明溫病(胃)은 中焦에 배속하였고 太陰溫病(肺)은 上焦에 배속하였는데, 足太陰은 溫病보다는 寒濕證에 배속하여 구분하였다.

## 5) 소결

이상 『內經』과 『難經』에 기반을 두고 三焦학설을 연구한 서적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說은 張元素 이전에는 三焦를 命門元氣와 연계하거나 少陽相火를 도입하지 않고 순수한 三焦病을 위주로 三焦를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難經』은 三焦를 水穀之道路라고 하여 水穀의 소화에 중점을 둔 부분과 三焦의 생리를 原氣로 밝힌 부분 두 가지가 있다. 『中藏經』은 이를 따라 水穀의 소화와 흡수, 배출의 이상을 三焦의 주요 病機으로 보아 汗出과 霍亂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刪繁方』,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霍亂은 嘔吐와 泄瀉가 중심 증상으로 津液의 흡수와 배출에 이상이 생긴 것이고 汗出 또한 津液이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藏經』은 이에 두 가지 변증을 사용하였다. 우선 病을 寒熱로 나누고 熱症은 實證이 되고 寒證은 虛證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熱은 不通의 증상을 일으켜 實證이 되고 寒은 不禁의 증상을 일으켜 虛證이 되는 것이다. 熱하면 不通하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면 우선 外因에 의해 腠理가 막히는 것과 소화 흡수과정에서 津液을 泌別을 하는 것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腠理의 關闔이나 소화 흡수에 관련하여서는 衛氣나 營氣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衛氣와 營氣는 後天穀氣에 속하고 元氣의 도움을 받는다고 보았는데, 熱症의 경우 衛氣와 營氣가 활동하는 上中焦에 영향력을 주어 手三焦와 少陽相火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三焦의 熱證은 營衛의 이상을 의미하고 手三焦의 相火의 이상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寒하면 津液을 不禁하는데 이는 元氣의 부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內經』에서도 陰勝하여 寒이 되면 眞氣가 부족해 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元氣가 부족하면 陽性이 부족하고 津液이 정체되어 附腫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附腫이 아닌 津液不禁을 이야기한 것은 津液을 막고

있던 關門이 열린 것으로 보고 이때는 陽氣의 推動이 없어도 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虛寒으로 나가는 津液, 예를 들면 식은땀이나 寒性 설사가 뜨겁지 않고 오히려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三焦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關門의 역할이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三焦의 元氣라고도 할 수 있다. 三焦의 元氣가 충분할 때는 關門이 적절히 열리고 닫히지만 元氣가 과도하면 뜨거워지며 關門이 닫히고 元氣가 부족하면 차가워지며 關門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關門이라고 하여 외부로만 열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三焦는 經絡과 臟腑 사이에서 기능을 하므로 內外 어느 쪽으로나 津液의 滲出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며 이때 상황에 따라 胸部나 腹部, 皮內에 水氣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考察

三焦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有形인지 無形인지부터 相火의 역할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지만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三焦와 元氣, 津液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연구 횟수나 자료의 양으로 볼 때 先天에 속하는 元氣보다 後天에 속하는 胃氣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津液대사에 대해서 三焦다 脾를 더 중요하게 보았으며, 先天之氣에 대해서도 腎間動氣보다는 命門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三焦나 元氣, 津液 개념에 대한 연구의 가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개념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깊게 연구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가 바로 氣와 津液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內經』과 『難經』조차 『內經』은 津液을 중심으로, 『難經』은 元氣 중심으로 三焦를 논하여 각각의 說을 통합하기 쉽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元氣로 보는 三焦와 津液으로 보는 두 서적이 보는 三焦가 결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元氣와 津液을 서로 겹쳐보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후대의 의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難經』의 腎間動氣처럼 動性을 가진 氣가 津液을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다. 腎間動氣는 『內經』의 天真元氣에서 유래하여 元氣의 기본 특성인 恒動性을 가진다. 恒動性이란 元氣는 원래 陰陽이 치우치지 않으면서 고요하고 안정적인 것이나 元氣가 五行을 생하며 세상에 나타날 때는 動而不息하다고 한 것을 줄인 말이다. 이는 母腹에 있던 胎兒의 腎間動氣가 발생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恒動性은 先天에 속하며 無爲의 성질과 無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張景岳은 천체에 비유하여 천체가 움직일 때는 火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여 恒動性의 움직임은 陽性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火의 개념으로 命門의 火나 眞陽, 眞火 등의 용어로 火에는 動性이 있어서 津液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는 津液을 蒸하여 津液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때의 火는 水中之火로 일반적인 病證의 火와는 달리 少火가 生氣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命門相火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脾胃의 소화를 돕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다보면, 恒動과 少火의 動性에 대해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恒動을 살펴보면 動性이 강해져 더



빨라진다고 뜨거워지는 개념은 아니다. 恒動은 천체의 움직임처럼 매우 빠르지만 그 속도를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火에 의한 動性은 전도와 대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을 데우면 온도 차이에 의한 물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를 推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恒動은 少火의 動性을 엄밀히 따지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도 三焦의 元氣는 足三焦에 배속하였고 三焦의 相火 개념은 手三焦에 배속하여 구분하였다. 대신에 三焦의 元氣가 腎間動氣처럼 완벽한 恒動性을 가진다기 보기는 힘들다. 호흡이나 營衛의 순환처럼 규칙적인 변화를 묘사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문헌적 근거를 통해 三焦의 ‘焦’는 元氣의 少火 작용이라고 판단하였고 三焦의 元氣는 少火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陽氣의 소모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腎間動氣와 같은 先天之氣는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움직임의 대가로 陽氣가 소모되고 소모된 만큼 熱(少火)이 나면서 이 熱에 의해 몸의 津液도 그 흐름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역대 의가들이 三焦를 바라볼 때에 腎間動氣보다는 命門相火에 더 치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腎間動氣와 少火, 三焦의 元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腎間動氣와 少火를 나누고 腎間動氣가 더 原泉과 元氣에 가깝다고 보았다. 少火는 三焦의 ‘焦’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三焦元氣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腎間動氣의 恒動은 陽으로 표현되는데 元陽 또는 眞陽으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少火나 陽氣로 보기 보다는 陰精(眞精)을 기반으로 하는 陽性으로 보아 陰陽의 치우침이 없는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기전	이름	성질	소모성	작용의 결과
火	三焦元氣	少火, 焦, 蒸	有(불완전)	生氣(後天穀氣)
恒動	腎間動氣	陰陽平均	無	呼吸

<표18> 先天의 恒動과 火

<표18>을 다르게 말하면 先天之氣가 後天에 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動氣는 熱로 전환되며 少火生氣하고 後天穀氣를 생산하거나 몸의 恒溫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일반적으로 元氣라고 하지 않고 元陽으로 지칭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少火의 상태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腎間動氣와 三焦元氣는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으나 현실에 드러날 때는 三焦元氣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先天之氣에 대해서 고찰한 것으로 後天之氣와도 비교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先天之氣와 後天之氣를 토대로 手三焦와 足三焦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

	三焦의 종류	氣의 종류	屬絡 관계	水火배속	火의 종류
手三焦	上中焦	後天之氣(胃氣, 營氣, 衛氣, 宗氣)	手少陽經	少陽相火	壯火
足三焦	下焦	先天之氣(腎間動氣, 下焦元氣)	膀胱	腎水	少火

<표19> 手三焦와 足三焦의 구분

<표19>에서는 元氣는 恒動하며 少火와 관련이 크다고 보았다. 後天穀氣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手三焦의 少陽相火는 壯火의 성질을 많이 보일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上中下 三焦의 구역으로 病邪의 위치를 나누고 증상을 寒熱로만 구분하는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변증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元氣를 진단의 한 축으로 본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下焦의 병은 주로 先天元氣의 문제로 少火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腎·膀胱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며 上中焦의 문제는 後天之氣의 문제로 消化에 이상이 생기거나 少陽相火의 이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를 上中下로 더 세분화하여 營氣, 衛氣와 津液의 상호 작용까지 살펴보고 진단의 힌트를 얻으려고 하였다. 진단에 있어 元氣와 더불어 津液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元氣나 다른 氣들이 현상에 드러나 직접 살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氣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津液의 形象이나 움직이는 모양, 움직이는 부위 및 주기성 有無 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래서 三焦와 元氣, 營衛를 다룰 때 津液의 상태를 설명하는 묘사를 주목하였다. 津液이 안개나 이슬처럼 안정적인 형상을 유지할 때는 元氣가 주가 되는 상태로 인식하였고 땀이 나거나 소변이 될 때는 少火이후의 後天之氣가 발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先天之氣와 後天之氣

가 모두 津液에 관여한다는 뜻으로 三焦는 이들의 작용을 開闔의 원리로 조절하는 것으로 보았다.

三焦의 開闔이란 三焦가 津液 대사에 직접적으로 開闔 작용을 하여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氣와 津液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기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衛氣와 營氣를 들고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三焦의 元氣를 제시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평소에 땀이 霧露之氣의 형태로 자연 증발을 하는 것은 元氣가 담당하고 체온이 올라 조절을 해야 하거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衛氣가 出氣되면 ‘津’의 형태로 땀을 나오게 된다. 營氣도 衛氣와 유사하여 평소에는 元氣에 의해 露의 형태로 孫脈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가 出氣하게 되면 ‘液’의 형태로 여러 脈絡을 통해 몸속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상 고찰한 내용은 땀뿐만이 아니라 눈물이나 콧물과 같은 각종 점막에서 분비되는 津液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땀 이외의 여러 진액 증상들도 元氣의 恒動 개념과 後天之氣인 營衛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의가들은 三焦病證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寒熱虛實의 변증체계를 사용하였다. 문헌적 검토 결과 寒熱虛實 변증은 『內經』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寒熱虛實 辨證에 元氣 개념을 더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단순히 寒하면 不禁하고 熱하면 實하는 것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元氣의 상태에 따라 三焦가 주관하는 腠理나 玄府, 大小便의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寒하여 不禁하여 땀이나 대소변이 새는 것을 三焦의 元氣不足으로 인해서 腠理가 열려 陽氣의 推動이 없어도 새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반대로 三焦의 元氣가 足하면 腠理가 닫혀있어 寒證으로 水氣가 생길 때 땀으로 나가지 못해 浮腫과 같은 水氣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熱證도 이와 비슷하게 분석하였는데 風邪와 같은 元氣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존재하여 三焦의 元氣가 부족하면 腠理가 열리게 되고 熱證이 심해지면 땀이 많이 나며, 元氣가 足할 때 熱證이 발생하면 땀이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IV. 結論

본 논문에서는 三焦의 전반적인 기능과 元氣와 津液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氣에 대해서는 先天之氣에서부터 後天之氣까지 살펴보고 三焦와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또한 元氣의 개념으로부터 恒動과 推動의 개념을 추론하여 三焦와 少陽相火에 생리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병증에 있어서는 上中焦와 下焦를 나누어 보려고 하였다. 上中焦의 後天之氣가 어떻게 出入升降하는지 그 원리를 알고자 하였고 下焦가 先天之氣와 연계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보았다.

1. 出入升降의 개념은 『內經』으로부터 시작하였다. 『素問·六微旨大論』은 出入升降이 인체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어 生長壯老已와 生長化收藏 같은 지속적인 생명의 순환과 연동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체를 하나의 器라고 보았는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通天’의 의미를 가진다. 『內經』의 先天之氣는 天氣, 天真이라고 하였으며 ‘通天’한다. ‘通天’은 호흡법과 연결되어 ‘天息’이라고 하였는데 神守天息을 하면 本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을 통해 元氣의 어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眞氣와 正氣, 邪氣, 穀氣를 고찰하였을 때 眞氣는 天真元氣에 속하고 經氣라고 하여 우리 몸을 순환하고 穀氣와 더불어 온몸을 가득 채운다고 하였다. 正氣는 陽氣 개념이 아닌 正風으로서 虛邪賊風과 대칭이 되는데, 風의 성질을 가짐으로써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正氣와 邪氣는 외부의 환경과 관련이 많으므로 外治의 양생법이 중요하며 眞氣는 本元에 속하여 內治의 양생법이 중요하다.

3. 元氣는 陰陽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沖和之氣의 특성이 있으며 이는 ‘寂而不動’하여 고요하고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元氣는 動而不息하는 造化之機의 특성이 있어 神機의 조절을 받아 恒動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 恒動은 神機의 出入升降과 함께 이루어지며 通天과도 비슷한 의미이다. 또한 恒動의 특성은 腎間動氣의 動氣에 이어져 인간의 元氣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4. 衝脈은 온몸의 경락과 이어지며 臍下의 胞中에서 시작하여 腎間動氣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반대로 腎間動氣와 右命門과의 관계는 元氣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 腎間動氣는 天真元氣가 天一水를 生한 후에 발생한다. 腎間動氣는 先天元氣이지만 五行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天一水의 속성을 부여받은 腎間動氣는 위치와 기능 모두 腎水와 관련이 높다. 이에 腎間의 의미는 左右의 腎이 나누어지기 전 眞精이 존재하는 一點으로 原泉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에서는 이를 태아의 발생과정과 접목하였다. 태아가 母腹에 있을 때 腎間動氣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臍帶를 통해 호흡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5. 元氣는 動而不息하여 恒動하는데 이는 腎間動氣의 動氣의 특성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火에 의한 推動과 달리 恒動은 천체처럼 고요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腎間動氣는 水中之火의 형상으로 실제로 발현하면 少火라고 할 수 있다. 이에 少火도 腎間動氣만큼 안정적이진 않으나 恒動性을 지녀 고요히 津液을 움직일 수 있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三焦의 ‘焦’와 少火는 元氣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찰하였다.

6. 先天之氣는 주로 下焦와 관련이 있고 後天之氣는 주로 上中焦와 관련이 있었다. 둘 사이의 관계는 先天의 眞陽이 後天을 蒸하여 소화를 돕는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三焦를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張景岳은 上中焦를 手三焦라고 하였고 下焦를 足三焦라고 하였다. 上中焦는 後天之氣인 胃氣를 받아 上行하고 下焦는 先天之氣인 元氣가 歸元하는 곳이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少陽相火가 주도하는 上中焦와 腎膀胱이 주도하는 下焦로 구분해 볼 수 있다. 少陽相火는 上中焦를 기반으로 三焦에 영향을 주고 腎膀胱은 下焦에 기반을 두고 上中焦에 영향을 주는 형식이다.

7. 上焦와 주로 연동되는 衛氣는 ㅁ을 주관하여 腠理를 관장하는 關鬮의 기능을 가진다. 단, 衛氣의 關鬮는 三焦의 조절을 받아야 한다. 이에 三焦元氣의 상태에 따라 關鬮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元氣가 津液의 흐름을 주도할 때는 霧露의 형태를 보인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히 증발하는 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衛氣는 눈에 보이는 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衛氣는 陽分과 陰分을 모두 지나가는 순환 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得陽得陰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衛氣가 得陽하면 체표로 진액

을 선포하면 땀을 배출하고 得陰하면 진액을 몸 안으로 응축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때 도 元氣가 중요한데 元氣가 虛衰할 때는 腠理가 열리게 되고 衛氣가 得陽하면 땀이 난다고 보았다.<sup>216)</sup>

8. 中焦는 ‘焦’의 의미를 살려 水穀을 腐熟하여 소화를 돕는 것으로 보았다. 中焦로부터 흡수된 津液은 中焦의 元氣에 의해 露의 형태로 宣布될 수 있으며, 谿谷(分肉之間)을 지나 孫脈으로 滲入하게 된다. 營氣는 血의 흐름을 조절하여 經脈을 통해 四肢와 五臟六腑 전체를 순환시킨다고 볼 수 있다.

9. 『難經·31難』에 대해서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臍下部는 병리와 치법을 위한 영역이지 下焦가 臍下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下焦의 영역은 腹部 중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水穀으로부터 分別淸濁을 담당한다. 分別淸濁하는 과정에 대해서 下焦의 元氣가 주도한다고 보았다. 이는 腎膀胱의 기능과도 이어지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三焦를 통해 전신의 水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 『中藏經』은 三焦病을 寒熱虛實로 보는 三焦病機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다만 처방이 없어서 후대의 『刪繁方』은 처방을 補入하였으며, 『備急千金要方』, 『外臺秘要』가 이를 이어 후대에 전하였다. 張元素 또한 『中藏經』을 기반으로 하는데, 三焦가 少陽相火之用이 되어 命門의 元氣를 분포한다고 하였다. 相火의 이상은 命門으로부터 발원한 元氣의 이상으로 해석하여 虛火補之라는 처방을 제시하였다. 元氣의 부족으로 熱症도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11. 三焦에 대해서 寒熱虛實의 辨證을 사용한 의가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三焦의 주요 病機는 소화 기능의 이상과 땀과 대소변의 배출 이상으로 보았다. 이에 汗出과 霍亂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때 病을 寒熱로 나누고 熱症은 實症이 되고 寒證은 虛症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熱은 不通의 증상을 일으켜 實症이 되고 寒은 不禁의 증상을 일으켜 虛症이 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元氣의 개념을 虛寒을 일으켜서 땀이나 대소변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寒할 때 腠理나

216) <표4> 三焦元氣의 상태에 따른 腠理변화 및 증상 참고 p.48.

內部の水道가 막혀서 浮腫이 되는 것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元氣의 虛衰에도 津液이 새어나가지 않는 水病을 三焦病으로 인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V. 參考文獻

### <단행본>

1. 王冰 註解. 四部備要『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2. 王冰 註解. 四部備要『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3. 孫桐 主編. 難經. 北京. 中國醫葯科技出版社. 1999.
4. 王九思 等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5. 左合昌美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新校正. 川口. 讀古醫書岐黃會. 2016.
6. 李慶雨 譯.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5. 서울. 여강출판사. 1999.
7. 譚春雨 整理. 中藏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7.
8. 王燾.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9. 劉守眞 撰.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0. 張元素 原著, 김은하, 변성희 공저. 臟腑標本虛實寒熱用藥式校釋. 서울. 일중사. 2001.
11. 張元素 原著, 金容辰, 趙學俊 編譯.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13. 張景岳 著.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4. 張介賓 著, 安永敏 編譯. 質疑錄 譯疏. 서울. 한미의학. 2009.
15. 李梴. 編註醫學入門 編著. 서울. 大星文化社. 1981.
16. 楊士瀛 著. 仁齋直指方. 서울. 東醫社. 1978.
17. 盧之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47. 서울. 대성문화사. 1995.
18.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19. 陳言 著.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7.
20.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21. 李梴.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6.
22. 葉天士 述. 醫效秘傳. 香港. 太平書館. 1970.
2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파주. 집문당. 2008.
24.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25. 喻昌. 醫門法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26. 滑壽. 續修四庫全書 子部·醫家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27.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1999.
28.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
29. 李時珍. 李時珍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2003.
30. 丹波康賴 原著, 宿稱康賴 撰, 李永熾 譯. 醫心方 서울. 同仁社. 1977.
31. 巢元方 撰, 魯兆麟 主校, 黃作陣 点校. 諸病源候論.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32. 曹炳章 原輯. 中國醫學大成.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1997.
33. 徐曾 等撰. 經絡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34. 陳無擇.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2005.
35. 盧之頤.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47. 서울. 대성문화사. 1995.
36. 楊士瀛. 楊士瀛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2005.
37. 張景岳. 景岳全書. 서울. 법인문화사. 2007.
38. 張介賓 著, 安永敏 編譯. 質疑錄 譯疏. 서울. 한미의학. 2009.
39. 許叔微 著. 許叔微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2006.
40. 吳謙.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41. 喻昌. 醫門法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42. 胡國臣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1999.
43.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06.
44.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1999.
45.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 <논문>

1. 정창현. 『溫病條辨』의 성립과정과 학술적 特徵.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1). pp.75-89.
2. 정창현.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p.223~234.
3. 정창현. 『東醫寶鑑』과 道家思想的 關聯性.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2) pp.25-30.

4.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6. 29(2). pp.187-202.
5.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6. 29(3). pp.101-111.
6. 장우창. 《黃帝內經素問 . 生氣通天論》의 陰陽體用觀에 대한 試論.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0. 23(6). pp.73-85.
7. 장우창.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2019. 32(1). p1-27.
8. 김종현. 脾臟의 機能에 대한 通時的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9. 조학준. 唐代 以前の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5. 28(2). pp.87-102.
10. 백상룡. 인체내 수액의 특성 및 대사기전에 대한 연구 -진액·혈·한·소변·정의 생성기전 및 성질에 대하여-.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5(3). 2003년. pp.130-137.
11. 김상현, 백유상, 정창현, 장우창. 『溫病條辨』의 三焦辨證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1. 24(2). pp.81-100.
12. 민진하, 정창현. 河間의 『內經』이론 활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원전학회. 2005. 18(2). pp.102-123.
13.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08. 21(1). p.63-78.
14. 윤창렬.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2013. 26(2). pp.1-7.
15. 신상원.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6. 하흥기, 김기욱, 박현국. 『黃帝內經靈樞』에 기재된 三焦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1. 24(4). pp.43-53.
17. 김규열. 章楠 『醫門棒喝』의 少陽三焦膀胱辨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원전의학학회지. 1993(7). pp.50-73.
18.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大小腸 泌別清濁에 관한 考察. 대한한의원전학회지. 2010. pp.225-233.
19. 박현국, 조면휘. 『中藏經』 삼권본의 해제와 해석. 동국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4. 3(1). pp.223-458.
20. 차윤근, 김경호, 윤종화. 元氣·宗氣·營氣·衛氣에 대한 고찰.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vol.3. pp.379-396.

21. 殷哲玟. 漢代 元氣說의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06. 19(1). pp.55-64.
22. 김도훈. 三焦經 하부 경맥 연관성에 대한 고찰. 경락경혈학회지. 2008, 25(4), pp.1-15.
23. 박석기. 김길환. 三焦의 장부계통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 15(6). pp.837-846.
24. 배정엽, 홍무창. 三焦의 機能과 病症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82. 4(2). pp.53-58.
25. 김종한. 「신기존망론(神氣存亡論)」과 「원기존망론(元氣存亡論)」을 중심으로 한 氣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217-233.
26. 박혁규, 맹웅재. 張景岳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7. 오재근, 윤창렬.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4). pp.249-260.
28. 정종국, 신영일. 『靈樞』 五癰津液別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2). p.317-335.
29. 김진호. 左腎右命門과 腎間動氣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3. 26(4). pp.253-266
30.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宗氣와 神氣의 關係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0. 23(6). pp.45-49.
31. 류도곤. 心包, 三焦, 命門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21(2). 2007. pp.362-369.
32. 김경신, 이재경, 강정수, 김병수. 五藏五府에서 三焦를 形成하여 五藏六府가 되는 藏府의 發生學的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4). pp.55-66.
33. 백유상, 김혜일, 김종현, 윤은경, 김상현, 박철한.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 三焦 相火 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187-202.
34. 문성식, 강정수. 三焦와 營衛의 相關性. 혜화학회지. 2000. 9(1). pp.105-112.
35. 박동인. 漢代 讖緯說의 형성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儒敎思想文化研究. vol.74. 2018. pp.193-230.

## <전자매체>

<https://ctext.org/zh>

# Abstract

A Study on Samcho(三焦), Wongi(元氣), Jinaek(津液)

Choi Donghyun

Departmen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Directed by prof. Jang Woochang

Samcho(三焦) has been studied a lot, but it's still not enough. Samcho(三焦) i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 has many areas of governance and complex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standards and study them. It was aimed at Samcho(三焦), Wongi(元氣), and Jinaek(津液). Wongi has not been studied much compared to importance and is not well known for its characteristics. Jinaek(津液) is also difficult compared to its importanc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tudy. So, we decided that it was very meaningful in studying the physiolo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s Samcho(三焦), Wongi(元氣), and Jinaek(津液). Through this method, we can find a clue for a Samcho(三焦) diagnosis.

Wongi(元氣) is a natural source of life. He is quiet, communicates with everything, and has no distinctions between the Yin(陰) & Yang(陽). However, it has always been called a Singandonggi(腎間動氣) because it has a moving and nonstop nature. The Singandonggi(腎間動氣), which was said in the book "The Nankyung," is known to be the source of the body's Wongi(元氣). The Singandonggi(腎間動氣) also connects with the Wongi(元氣)

of the Samcho(三焦).

Wongi(元氣) of the Samcho(三焦) helps digestion and moves Jinaek(津液) by using the nature of the Sohwa. He also opens and closes Juri(腠理) with the help of Wongi(元氣). So you can control the flow of Jinaek(津液) such as sweat, feces, and urine.

The disease of Samcho(三焦) occurs as a change in the fever. The basic principle is that when it is cold, it becomes weak and hot, it is strong. At this time, the concept of Wongi(元氣) can be explained in a more diverse way. Lack of energy opens up Juri(腠理) and produces cold sweat. When the Juri(腠理) are closed because of the Wongi(元氣). When it gets cold, edema develops. Also, the lack of Wongi(元氣) makes it possible for the Juri(腠理) to remain open. A fever produces perspiration. There is a lot of Wongi(元氣), so when Juri(腠理) is closed, it doesn't sweat and it has a lot of heat.

### **Key words**

Samcho(三焦), Wongi(元氣), Out-In-Up-Down(出入升降), Jinaek(津液).

## 감사의 글

부족했던 저와 제 연구가 하나의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차곡차곡 글을 쓰고 정성스레 자료를 모으지 못해 시간에 쫓기며 연구와 글쓰기를 동시에 하다보니 두서도 없고 내용도 산만한 글이 된 것 같아 내심 부끄럽지만 여러 고마운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 내용 또한 초기의 대상과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 갈피를 못잡고 있을 때 지도교수님인 장우창 교수님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가장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갔다면 쉬이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우둔하여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유상 교수님은 제가 논문을 시작도 못하고 있을 때 저를 시작하게 만드신 분으로 動氣를 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즈음에는 장교수님과 함께 일요일에도 논문의 짜임새와 마무리를 봐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창현 교수님 또한 저의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종현 교수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교수님께도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했어야 더 좋은 논문이 나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교수님께서 주심교수님으로서 3차까지 진행된 심사가 매우 번거로움에도 차분하게 진행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교실에서 자주 뵙는 안진희 교수님, 신상원 교수님 또한 저를 도와주셔서 무척 감사드리며 특히 윤기령 조교님은 제가 변변치 못해 제대로 못한 것이 많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지면에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최근 몇 달간 논문을 쓰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는데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와 기다려준 아이들이 너무나 고맙고, 언제나 응원해주는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빌어 봅니다.